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정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극 영화의 캐릭터에 따른
분장 사례 연구

- 영화 “쌍화점”을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서영

사극 영화의 캐릭터에 따른
분장 사례 연구

- 영화 “쌍화점”을 중심으로 -

김정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서영

인 준 서

김서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논문 개요

영화에서 분장은 대본의 스토리(Story)를 극화시키고 표현해 내는 가장 근본 요소인 배우의 표현력을 일차적으로 시각화 시켜서 보여주게끔 만들어 주는 작업이다. 영화 속 등장인물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제반 사항들을 이미지(Image)화 하여 외적으로 표현해주고, 인물이 내·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캐릭터(Character)화 시켜 배우를 영화 속의 인물로 적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본 논문은 2008년 유하 감독이 연출하고 주진모, 조인성, 송지효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쌍화점”의 제작사례를 통해 사극영화에서의 분장이 캐릭터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을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화 “쌍화점”은 고려시대 말 원 간섭기에 재위한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1330~1374) 시절의 이야기를 모티브(Motive)로 하여 왕실을 배경으로 왕과 왕비 그리고 호위무사 사이에서 벌어진 격정적 삼각 애정관계를 그린 사극 영화로 고려시대의 동성애라는 파격적인 소재와 기존 영화에서 접하기 어려운 고려시대의 화려한 이미지를 관능적인 영상미로 담아낸 작품이다.

본 논문은 우선 사극영화에서의 분장의 이해를 위해 사극분장이 갖는 작업의 특성을 알아보고 사회·문화적 시대상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

사극영화는 역사적 사실의 사건이나 인물에 기초하여 극을 만드는 만큼 사극분장은 필연적으로 고증을 통해 사실성을 검증하여야 하는 작업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루고자하는 그 시대상을 표현함에 있어 지나치게 왜곡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 시대의 관습과 풍습, 사상을 나타내는 유물과 문헌, 사료들을 참고하여야 한다. 고증자료가 풍부한 조선시대에 비해

고려시대는 정확한 사실적 고증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편이라 분장사의 재 해석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재창조가 많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 본 영화의 작업에서도 고증과 상상력이 조화를 이루는 재창조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과정을 통해 분장이 고증을 바탕으로 사극 인물을 디자인(Design)하여 재창조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영화 “쌍화점”의 중심인물들인 ‘고려왕’과 ‘왕후’, 그리고 이들과 삼각 애정 관계를 만들어가는 ‘홍림’이란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여 각각의 인물이 장면에서 적절히 표현될 수 있도록 캐릭터를 구축하고, 이미지화 시켜줄 수 있는 사극분장 재현요소의 스타일(Style)을 디자인하는 과정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각 인물별로 이를 표현해내기 위해 성격과 장면에 맞는 안면 분장 및 헤어스타일(Hair style), 그리고 이에 맞는 장신구들을 설정하여 디자인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아 분장 작업이 캐릭터를 구축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완성된 인물들의 이미지가 주요 장면들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기능하여 영화 전체적인 내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사극분장의 이해	4
1. 시대적 관점	6
2. 사회적 관점	9
3. 기술적 관점	11
4. 분장 디자인을 위한 사전 고증	13
1) 고려 시대 말기의 특징	13
2) 분장	14
3) 헤어	17
4) 수식 및 장신구	22
III. 쌍화점 제작 사례	26
1. 영화 쌍화점 개요	26
2. 영화 쌍화점 주요 등장인물 캐릭터 분석	29
1) 고려왕 - 주진모 분	29
2) 흥림 - 조인성 분	29
3) 왕후 - 송지효 분	30
IV. 분장 및 스타일 디자인 제작 사례	32
1. 고려왕	32

1) 인물의 배색 및 디자인 이미지	32
2) 분장 및 헤어 디자인 작업	34
3) 장신구 디자인 작업	36
4) 캐릭터 이미지 결과분석	39
2. 홍림	45
1) 인물의 배색 및 디자인 이미지	45
2) 분장 및 헤어 디자인 작업	47
3) 장신구 디자인 작업	49
4) 캐릭터 이미지 결과분석	52
3. 왕후	59
1) 인물의 배색 및 디자인 이미지	59
2) 분장 및 헤어 디자인 작업	62
3) 장신구 디자인 작업	67
4) 캐릭터 이미지 결과분석.....	71
 V. 결론	 79

참고문헌

ABSTRACT

그림 목차

<그림1> 조반부인상	15
<그림2> 둔마리 고분벽화	15
<그림3> 수월관음도 공양자상	15
<그림4> 밀양 고법리 박익묘벽화	15
<그림5> 추마계	18
<그림6> 아환계	19
<그림7> 조천계	19
<그림8> 쌍수계	20
<그림9> 각시탈	20
<그림10> 상투와 민상투	21
<그림11> 개체변발	21
<그림12> 비너	22
<그림13> 떨잠	23
<그림14> 뒤꽂이와 빗치개	23
<그림15> 고려황후 칠휘이봉관 복원도	24
<그림16> 공민왕과 왕비	24
<그림17> 고고리	24
<그림18> 족두리	24
<그림19> 최유선 상	25
<그림20> 강민첨 상	25
<그림21> 정몽주 상	25
<그림22> 영화 쌍화점 포스터	26
<그림23> 왕의 배색	32

<그림24> 왕의 참고 이미지	32
<그림25> 왕의 기본 디자인 이미지	33
<그림26> 고려왕 역인 배우 주진모를 모델로 디자인한 인물 컨셉 이미지..	33
<그림27> 왕 민상투 머리 스타일과 피부 톤 테스트	34
<그림28> 왕 반머리 상투 스타일과 피부 톤 테스트	34
<그림29> 왕 반머리와 수염 테스트	35
<그림30> 왕관 디자인	36
<그림31> 왕 집무관 디자인	37
<그림32> 왕 상투관 디자인	37
<그림33> 왕 용 장식 디자인	37
<그림34> 왕 귀걸이 디자인	38
<그림35> 고삿 걸린 왕	39
<그림36> 명심정에 나들이 중인 왕과 왕후	39
<그림37> 원 사신을 맞아 부복하는 왕	40
<그림38> 변복을 하고 홍립을 기다리는 왕	41
<그림39> 연등회가 열리는 장면	41
<그림40> 수라상 앞에 마주앉아 있는 왕과 홍립	42
<그림41> 왕과 홍립의 검술대결	43
<그림42> 홍립의 거세를 지시하는 왕	43
<그림43> 왕의 최후	44
<그림44> 홍립의 배색	45
<그림45> 홍립의 참고 이미지	45
<그림46> 홍립의 기본 이미지	46
<그림47> 홍립 역인 배우 조인성을 모델로 디자인한 인물 컨셉 이미지 .	46
<그림48> 홍립 1차 반머리 민상투 머리 테스트	47
<그림49> 홍립 2차 반머리 민상투와 피부 톤 테스트	47

<그림50> 홍립 올려 묶은 머리 스타일 테스트	48
<그림51> 홍립 앞머리 내린 상투 머리와 분장 테스트	48
<그림52> 홍립 두건 디자인	50
<그림53> 홍립 링 장식 디자인	50
<그림54> 홍립 상투 끈 디자인	51
<그림55> 홍립 비녀 디자인	52
<그림56> 왕에게 죽을 먹여주는 홍립	52
<그림57> 명심정에서 왕을 호위하는 홍립	53
<그림58> 자객의 습격으로 다친 왕을 지키는 홍립	53
<그림59> 왕후와의 합궁	54
<그림60> 벽란도에서 변복한 홍립	54
<그림61> 영수전 침소에 모인 세 사람	55
<그림62> 왕 앞에 무릎을 꿇은 홍립	55
<그림63> 건룡위 부하들의 효수된 머리를 바라보는 홍립	56
<그림64> 성에 숨어드는 홍립	56
<그림65> 건룡위를 제압하고 왕에게 오는 홍립	57
<그림66> 홍립의 최후	57
<그림67> 왕후의 배색 이미지	59
<그림68> 왕후의 참고 이미지	59
<그림69> 왕후의 기본 이미지	60
<그림70> 왕후 역인 배우 송지효를 모델로 디자인한 인물 컨셉 이미지 ..	60
<그림71> 다양한 가चे 디자인 테스트	62
<그림72> 왕후 1차 헤어 테스트	63
<그림73> 왕후 2차 메이크업 및 헤어 테스트	63
<그림74> 극 후반부를 위한 메이크업 및 헤어 테스트	64
<그림75> 왕후 가चे 및 헤어 테스트	65

<그림76> 왕후 나인복장 테스트	65
<그림77> 왕후관 디자인	68
<그림78> 봉황과 깃털 모양 머리장식	68
<그림79> 구슬장식	68
<그림80> 사신 영접용 관과 머리장식 디자인	69
<그림81> 명심정 나들이용 관과 머리장식 디자인	69
<그림82> 일상용 관과 머리장식 디자인	70
<그림83> 왕후의 첫 등장	71
<그림84> 명심정에 나들이 중인 왕후	72
<그림85> 사신 영접 중인 왕후	72
<그림86> 홍림과의 합궁	74
<그림87> 왕, 홍림과 함께 모인 왕후	74
<그림88> 연등회의 왕후	75
<그림89> 홍림을 기다리는 왕후	76
<그림90> 왕후의 침소	77
<그림91> 홍림에게 쌍화병을 주는 왕후	77
<그림92> 건륭위 부총관에게 왕의 제거를 지시하는 왕후	78

I. 서론

영화는 문학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연극, 음악, 미술, 무용, 사진 등 여러 예술 요소를 통해 영상 이미지로 만들어 전달하는 시각 예술의 종합적 완성 형태이고 대중매체로서 사회적, 문화적 파급력이 크다.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라고 할 만큼 디지털(Digital)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영화, TV, 광고, 잡지, 인터넷(Internet) 등 일련의 대중매체에 의해 이미지가 무한 반복 재생산하는 시대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재창조된 이미지들의 유희가 실제 자체보다 더욱 큰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재현되면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양한 정보매체들 중 영화는 그 어느 매체보다도 영상 예술의 대중화를 이루게 하였고, 다양한 영화적 재현 장치들을 통해 환상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중의 충동과 감각을 자극하며 동화시킨다. 영화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분장(扮裝) 및 특수분장은 극의 완성을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배우의 얼굴 및 신체의 의도된 변모 작업을 통하여 캐릭터의 시각적인 이미지와 스타일을 창조함은 물론 한 시대의 시간, 공간, 생활상, 관습 등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생산하는 기호로써, 오늘날의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s)을 비롯한 각종 기술적인 작업과 결합하여 무한한 영화적 상상력을 표현해내면서 환상적인 화면을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영상매체의 완성을 위해 구성하는 여러 분야 중 하나인 분장은 등장인물을 표현하게 해주는 첫 단계의 요소이다. 분장과 헤어스타일은 의상 및 장신구들과 더불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욕구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물의 시대, 문화상은 물론 한 개인의 삶을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다. 인물의 성격, 품성, 신분, 지위, 학식, 나이 등 많은 요소들을 만들어주고 시각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배우의 연기와 더불어 배역을 인물화 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표현수단이며, 배우가 배역의 성격을 관객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수단이다. 배우의 연기력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을 최상의 상태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시대상황이나 인물의 개성을 분장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분장은 인물들의 개성과 성격을 최대한 적절하게 살아나게 할 수 있도록 성격분장 등을 통해 연기자의 표현력을 증대시켜 주어야 한다.

사극(史劇) 또는 역사극(歷史劇) 영상물은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인물들을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해석하고 시각화된 과거의 이야기를 빌어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극화하는 방법으로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사극 영상물에서의 분장은 그 시대적, 문화적 인물들의 모습과 성격을 시각화한 이미지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적극적 고증을 통한 사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극과 인물의 표현과 믿음에 도움을 주고 시각적 재미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재창조와 형식적 접합을 시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다변화하는 사회와 문화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퓨전(Fusion) 사극이 자주 제작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장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분장사는 분장의 표현기법이나 재료의 선택은 물론 작품을 해석하고 그 요구에 따른 등장인물의 캐릭터 시각화를 위한 디자인 및 스타일 구성에 대하여 충분한 노력과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분장 중에서도 사극 분장의 특성과 사극 영화의 등장인물 캐릭터의 이미지 형성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극 영화는 비교적 역사적 사료나 고증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많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진모, 조인성, 송지효 주연의 2008년도 작품인 영화 “쌍화점”은 고려 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사극 영화이며, 흔히 다루지 않는 왕의 파격적인 동성애를 소재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전통 사극에 비해 사실적 역사고증을 거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영화의 제작 작업에서는 시각적 이미지화를 위해 비교적 자유로운 재창조 작업을 통해 인물 캐릭터의 분장 및 스타일 디자인을 만들어 내었다. 이에 본 영화의 캐릭터 분석과 스타일 디자인 작업사례를 통해 분장 작업이 사극 영화의 이미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극분장의 이해

사극(史劇)은 역사적 실재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재로 만들어진 극(劇)을 말하며, 현대극에 비해 극성이 강하고 사실과 허구를 결합하여 시너지(Synergy)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역사적 지식욕과 드라마(Drama)적 재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사극은 역사에 기초하지만 드라마 상으로 보여주는 많은 부분은 역사를 창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를 현재에 비유하여 형상화시키는 것으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상상력이 동원되어 재창조되는 장르로서 상징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 실존의 사료(史料)가 바탕이 되어 극화(劇化)를 시킨 내용으로 작품이 창조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고증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 필수 요소이며 극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과 그 시대의 유물과 유품, 역사서적 등의 참고자료를 통해 그 시대의 특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극의 분장은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관습과 풍습, 사상 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역사적 사실에 의한 고증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현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극은 현대가 아닌 지나간 시대의 배경을 보여주는 시·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현대의 배우를 과거의 인물로 재현하는, 즉 등장인물의 외형적 특징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극은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시대와 사건과 인물을 역사적 바탕에 두고 있는 ‘정사극(正史劇)’, 사건과 인물을 모두 픽션(Fiction)으로 하며 코스튬(Costume)만 위주로 하는 ‘창작역사극’, 시대와 사건은 정사에서 취하되 인물만을 픽션으로 하든지 아니면 픽션의 인물과 실재의 인물을 함께 그려가는 ‘야사극(野史劇)’으로 분류한다.¹⁾ 역사적 사실을

1) 신봉승, “역사와 역사극의 인식”, 방송연구, 1984, p166-174

바탕으로 하는 정통사극은 스토리 전개에 드라마로서 약간의 픽션은 가미될 수 있으나 역사적 사실자체를 왜곡시키거나 수정 할 수는 없다. 반면 창작 역사극과 야사극은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세계 속에서 가공의 인물들, 가공의 사건들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역사라는 옷을 걸친 멜로드라마(Melodrama)일 뿐 역사성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²⁾ 근래에는 전통사극의 극적 전개에서 벗어나서 현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영상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전통의 시대배경에 현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퓨전사극’이라는 장르(Genre)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

현대극에 비해 사극은 과거의 시간·공간적 상황의 재현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하며, 현실과 달리 화려하고 장엄한 시각적 이미지는 드라마의 이야기 구조 안으로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배경이 되는 시대는 분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분별되는데 사극의 분장은 역사적 상황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지위와 역할 등을 나타내어 주는 매개체가 되어 극의 몰입과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일정한 사극분장의 이미지와 시대가 연결되어 인식되면 그 연계성이 강하며, 현대극의 분장과 달리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강하게 인식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과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극의 분장은 극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작품의 의도와 해석을 담은 보다 효과적인 구성과 영상미를 위해 디자인에 있어 다면적인 변화를 갖기도 하며, 새로운 해석과 창작의 여지를 갖고 현대화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상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무분별한 재해석은 왜곡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2) 최상식, “TV 드라마 작법”, 제삼기획, 1997, p350

1. 시대적 관점

우선 사극의 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가 시대적 관점에 따른 것이다. 극이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과거 시대가 어느 시기를 배경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실적 고증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여러 요소들이 사극분장의 작업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TV드라마 혹은 영화에서의 사극은 그 시대적 배경의 범위를 상고시대로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일제시대까지로 한다.³⁾ 그 후의 역사적 시기는 시대극과 현대극의 범주로 구분한다. 하지만 사극에서 시대적 배경으로 삼는 시대는 역사적 사료 및 자료와 유물이 가장 많이 보존되어 전해오는 조선시대를 주로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점차 신라, 고려 등의 다른 시대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역사적 시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탐구가 해석과 창조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사극에서 가장 많이 재현되는 조선시대는 왕권이 강화되고 유교적 사회구조에 따른 대외관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던 시기이며 근대적 특징도 가진 사회였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화장의 풍속 역시 기녀와 같은 특수직 여성을 제외하고는 엄격한 규범과 예절이 있었다. 사극에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미혼남성은 머리를 길러 땅밧고 기혼의 남성은 상투를 틀었으며 수염을 자연스럽게 기른 것이다. 정통사극의 주요한 시대적 배경이 되는 조선 중기, 영·정조 시대에는 미혼녀들은 땃아 늘인 머리카락이나 귀밑머리 등을 하였고 궁중에서는 새양머리를 하였다. 또한 궁중에서는 대례복에는 큰 머리를, 소례복 차림의 당의에는 어여머리에 떨잠 등을 수식하였다. 수식품으로는 가채와 엷은머리에 떨잠을 사용하였고 쪽머리를 사용하던 각종 비녀류와 뒤꽂이 등이 있었다.⁴⁾

3) 이병훈. "TV사극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논문, 1997, p11

얼굴 화장 중 피부는 백분을 바른 것처럼 하얗고 밝게 표현하였으며 눈썹은 초승달처럼 부드럽게 그렸고 입술은 연지를 문혀 바른 것처럼 또렷하고 작게 그렸다. 볼 화장은 두드러지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여 최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고려 시대는 귀족 중심의 사회였으며 신라의 정치제도와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송을 비롯한 중국의 문화 요소를 받아들리며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펴 나간 시기였다. 또한 불교를 국교로 한 숭불주의 정책과 함께 불교문화는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시기였다.

고려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보수성과 다른 자유분방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맞게 화장 문화 또한 외형적으로 사치스럽고 내면적으로는 탐미주의 색채가 농후하였다.⁵⁾ 고려 초기에는 당의 기녀제도를 모방하여 교방을 설치하여 화려한 기녀중심의 화장이 보급되었으며 이를 분대(粉黛)화장이라 하였다. 궁녀도 기생과 흡사한 화장을 하였다. 반지르르한 머릿기름에 백분을 두텁게 바르고 눈썹을 가늘게 반달눈썹으로 그리며 뺨에는 연지를 발랐다. 당시로서는 매우 짙은 화장이었는데 기생을 분대라고 부를 만큼 기생의 상징적인 치장이었다. 일반여성은 비교적 짙은 화장을 즐기지 않아 분은 사용하나 연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머드나무 잎같이 가늘고 아름다운 눈썹을 그렸다. 이리하여 화장이 기생의 분대화장과 일반부인들의 옅은 화장으로 이원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의 여인들은 원의 간섭을 받기 전까지는 무르익은 송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체머리를 한껏 활용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 원의 간섭기 이후 두발장식 및 화장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남자의 머리는 통일신라시대의 풍속이 거의 전승되어 신분과 나이에 따라

4) 김유경외, 사극드라마의 여자캐릭터의 분장특성 연구, 패션비즈니스 학회지, 제13권, 4호, p65

5) 박선예, 고려와 조선의 분장과 두발장식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p19

두발을 달리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추계를 틀었으며 원의 간섭기 이후 편발, 개체의 몽골식 두발양식이 성행하였다.

이렇듯 각각의 시대마다 역사적 배경에 따라 분장과 관련한 여러 요소들이 변화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표현하고자하는 인물이 속한 시대적 상황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를 바탕으로 재해석된 인물을 이미지화 시키고 창조해 내어야 한다.

2. 사회적 관점

사극분장에서 등장인물이 속하는 사회적 관점으로의 배경 또한 극과 인물을 표현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시대 중 등장인물이 속하여 활동하는 사회의 관습과 제도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여 캐릭터의 이미지 형성에도움을 주어야한다. 사극의 분장은 표현하고자 하는 시기의 특정한 사회·문화적 시대상의 표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사극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과거의 사회는 계급, 계층이 구분되고 신분 및 사회적 지위의 고·하 여부, 성별 등 여러 엄격한 사회적 규범이 인물의 외적 요소들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사극분장에서 인물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극중에서 어느 신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으며 이는 외적 변화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사극에서 남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수염분장을 사용하는데 인물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수염 및 상투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고 디자인을 달리한다. 남성 아이콘(Icon) 중 하나인 수염이 과거에는 남성에게 있어 권력과 지혜, 힘의 상징이기도 하였다.⁶⁾ 길고 가지런한 콧수염과 턱수염의 양반수염, 거칠고 강한 느낌의 수염으로 주로 무관에 많이 사용하는 털보수염, 덩수룩하고 정리가 잘 안된 평민수염 및 도인수염, 선비수염, 대감수염, 이방수염 등 신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수염으로 인물을 표현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수염뿐만 아니라 피부 톤을 달리 드러내는 분장을 통해서도 인물의 신분을 나타낸다. 바깥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평민이나 상인들은 피부가 검게 그을리기 마련이었지만, 대개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실내생활로 인해 대부분 흰 피부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흰 피부가 귀(貴)의 상징이었다.⁷⁾ 이 밖에도 눈썹의 형태, 피부 톤, 머리 형태 및 장식,

6) 박소연, TV사극에 나타난 안면분장과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p7

7) 박소연, 전게서, p8

의복 및 장신구의 종류 등 여러 요소를 사용하여 인물의 사회적 외적 형태를 표현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물이 속한 사회적 신분에 따라 머리모양, 피부 톤, 색조, 장신구 및 의복의 종류를 달리하여 표현한다.

이와 같이 사극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특징과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분장의 콘셉트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기에 영화의 사회적 배경과 그에 따른 표현양식을 인지하고 인물을 재창조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3. 기술적 관점

영상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고해상도의 매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상제작 기술 또한 변화하고 있다. 분장도 짙고 두터운 강한 느낌의 분장 위주에서 모공까지도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고화질의 영상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섬세한 분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사극분장은 주로 가발과 수염 분장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으며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한 작업을 요구한다. 가발의 사용은 전체 통 가발을 쓰기보다는 부분 피스(Piece)나 부분 가발 등을 이용하여 연기자 자신의 머리카락과 색상을 동일하게 맞춰서 붙여주어 자연스럽게 연출을 한다. 망수염의 경우 좀 더 가는 굵기의 망을 떼서 수염을 사용해야 하고 가발 또한 지나치게 술이 많아 어색한 분위기를 내기보다는 술의 양을 조절하여 리얼리티(Reality)를 살려줘야 한다. 최근의 경향은 섬세함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염의 접착제인 스피리트 검(Spirit gum)의 반짝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망수염의 경우에는 붙이기 전에 젖은 거즈(Gauze)로 먼저 찍어 내고 수염을 붙이거나 고무 찰흙 등을 활용하여 반짝이는 난반사를 줄여주며 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학용 실리콘(Silicon)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시간 및 비용의 절약과 효율을 위해 망수염을 많이 썼다면 최근에는 일본에서 개발된 합성 섬유인 카네칼론(Kanekalon)을 사용하여 수염의 울을 피부에 직접 붙이는 방식이나 배우 본인의 자연스러운 수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극 분장에서는 극에서 다루는 과거시대 당시의 화장 문화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료적인 측면 및 화장 문화의 표현방법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불과 입술에 발랐던 붉은 색조화장품을 일컫는 연지는 홍화(紅花)에서 추출했는데 가루 또는 환 형태로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기름에 개어서 사용했다. 연지는 귀하여 서민들은 붉은 고추를 말려 뒷면에 한지를

덧대고 둥글게 올려서 붙였다. 눈썹을 그릴 때는 주로 굴참나무나 너도밤나무의 목탄을 사용했으나, 상류층 여성들은 식물을 태운 재나 그을음으로 만든 먹을 기름에 개어서 눈썹을 그리는데 사용했다. 재료에 따라 검은색, 검푸른색, 짙은 밤색 등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며 눈썹이 진하고 술이 많은 경우에는 족집게로 술을 다듬고 금가루나 누린 분을 발라 부드럽고 옅은 색을 냈다. 분은 주로 쌀, 기장, 분꽃씨의 흰 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분이나 백분이라고 한다. 옛 여인들은 얼굴색에 맞는 분을 만들기 위해 미분에 칩가루나 황토를 섞기도 했다. 미분은 얼굴에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물과 기름에 개어서 사용했으며 분첩이나 누에고치로 펴 발랐다.⁸⁾

이와 같은 과거의 화장 재료와 방법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및 화장방법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의 재료나 방법을 그대로 재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고려는 해야 할 대상이며 이는 장신구 등의 재질선택과 디자인 제작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 코리아나 화장 박물관 홈페이지, www.spacec.co.kr

4. 분장 디자인을 위한 사전 고증

1) 고려 시대 말기의 특징

고려시대 말기는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정치적으로 왕실과 권신들 간의 내분은 그치지 않았고, 왕권과 권문세족에 결탁한 불교의 폐단은 유생들이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도록 만들었으며, 노비의 난 등 계급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수탈을 당하던 기층민의 반발이 이어졌다.

고려시대에도 고대 사회와 같이 신분의 세습을 원칙으로 하는 계층이 있었고 생활모습도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상류층인 문벌귀족은 다점에서 차를 즐기며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귀족은 식음과 공음전, 외거노비에게 신공을 받고 고리대를 통해 풍족한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귀족들이 경제적 부(富)를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 참여하여 출세의 길도 독점하였다. 반면 하류층인 평민은 일반 주·군·현에 거주하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여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들이었고 천민층은 화척⁹⁾·재인 및 노비 등으로, 노비들은 신분을 세습하여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¹⁰⁾

종교적으로는 개국시부터 이어져온 숭불정책을 바탕으로 불교는 각종 교화 사업과 함께 많은 구호 사업을 펼쳤으며 호국의 역할과 고려 예술의 발달에도 기여하는 등 많은 순기능을 하였지만 고려 말기에 이룰수록 부정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재하고, 많은 경비를 들여 자주 절을 짓거나, 연등회, 팔관회 등과 같은 많은 불교행사의 개최는 고려가 기울어지게 된 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고려시대의 복식은 고려 초기 당과 송의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후기인

9) 조선시대의 백정

10) 네이버 백과사전, 고려의 사회, <http://100.naver.com/100.nhn?docid=722978>

원 간섭기에는 개체변발, 질손 등 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후 공민왕 시절인 말기에 명과 친근을 도모하면서 왕은 중국 황제와 동격인 십이류면, 십이장목을 착용하였고, 문무백관은 흑의, 청립으로 하고 쾌복은 흑건대관으로 하며 여복은 흑라로 고쳐 입기도 하였고, 이는 배원향명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자주성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2) 분장

고려시대의 분장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현존해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몇몇 그림과 벽화, 사료 등이 남아있어 이를 토대로 그 당시의 인물상을 추측하여 그려볼 수는 있다.

고려가 신라의 정치, 경제, 군사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한데다가 문화와 생활관습마저 계승하였으므로 신라의 화장경향 역시 계승, 진보하였다.

고려인의 화장에 대한 서긍의 ‘고려도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성들의 화장법이 연지를 사용하지 않고 눈썹을 가늘게 그리는 등 짙은 화장을 즐기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매우 짙은 화장을 했던 송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으로 고려인들의 화장이 결코 얇지 않았으며 불가(佛家)에서 짙은 화장을 금했던 것으로 보아 연지 또한 사용했음은 알 수 있다. 관기제도가 확립된 고려시대 초부터 기생(妓生)을 중심으로 짙은 화장, 즉 분대화장(粉黛化粧)이 성행하였다. 분대는 얼굴에 바르는 백분과 눈썹먹인 미묵(眉墨)을 뜻하는 것이며, 분대화장은 반지르르하게 머릿기름을 바르고 짙은 눈썹과 연지화장 외에 백분을 많이 펴 바른 것으로써 매우 짙은 화장이었다. 분대에 의한 화장이 기생의 별칭이 될 만큼 기생의 상징적인 치장이었으며 이러한 의식화장은 조선시대에까지 계승되었고, 이와 달리 여염집 여성들은 얇은 화장을 고수하여 고려시대부터 화장경향이 분대화장과 비분

11) 조성옥 외, 고전으로 본 전통머리, 광문각. 2011. p57

대화장으로 이원화되었는데, 이 같은 기생들의 분대화장으로 인하여 화장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겨나기도 했다.¹²⁾ 그러나 기녀제도의 영향으로 일반 부녀자들도 신체와 머리카락, 옷에 향을 애용하여 뿌리거나 발랐으며 갖가지 보석장식을 하고 화장품을 점점이 진하게 발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1> 조반부인상

(출처: 정매자 외, 우리나라 옛 여인의 머리 치장, 청구 문화사, 2008, p66)



<그림2> 둔마리 고분벽화

(출처: 정매자 외, 우리나라 옛 여인의 머리 치장, 청구문화사, 2008, p68)



<그림3> 수월 관음도 공양자상

(출처: 임린, 한국 여인의 전통머리 모양, 민속원, 2009, p93)



<그림4> 밀양 고법리 박익묘벽화

(출처: 국립대구박물관, 한국 전통복식 2천년, 통천문화사, 2002, p50, 51)

12) 네이버 백과사전, 고려시대의 화장, <http://100.naver.com/100.nhn?docid=731058>

<그림1> 조반부인상에서 옅은 화장을 한 귀부인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2>의 거창 둔마리의 피리 부는 여인이라는 벽화는 당시 지방호족의 여인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보면 하얀 얼굴에 입술 화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의 팔부중공양 공양자상 속 여인의 모습에서도 하얀 분 화장과 입술 화장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에서 발견된 귀족여인들의 나들이 모습이 묘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4>의 벽화들에서는 반달형의 가는 눈썹은 다른 벽화와 동일하지만 붉은 저고리를 착용한 여인의 붉은 입술 색에서 고려 상류층 여인들의 화려했던 화장 문화를 짐작케 하며 기녀가 아닌 상류층 여인들도 분대 화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¹³⁾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남자들도 화장을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무녀와 관비를 남장으로 가장시켜 배우화 하여 노래를 가르친 것으로 보아 남장에 따른 기녀 화장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⁴⁾

고려시대의 화장 기법인 분대 및 비분대 화장이 현대의 화장기법과 많은 차이가 있어 낯설게 느껴지고 적절한 재현이 어렵기 때문에 사극영화의 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드라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메이크업(Make-up)으로 인물의 캐릭터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 조혜정, 고려시대의 머리모양과 수식 및 화장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p54

14) 조혜정, 전게서, p50

3) 헤어

고려 서민 남자의 두발 형태는 머리를 길게 땀아 내리던 편발이 있으며 피발에서 발달된 계(상투)는 관례를 할 때 상투를 틀거나 쪽을 지던 결발의 양식으로 모두 추계를 틀었다. 또한 고려 말기에 성행했던 것으로 머리 가장자리는 깎고 나머지 부분은 길게 땀아 내리던 개체가 있으며 크게 이 두 가지였던 것으로 본다.¹⁵⁾ 서궁의 『고려도경』에 “장가들지 않은 자는 다 건으로 머리를 싸고 내려뜨리다가 장가 든 뒤에 속발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머리를 가지런히 묶고 속발의 머리 형태와 오사모¹⁶⁾나 복건¹⁷⁾과 같이 건을 착용했다.¹⁸⁾ 여성은 『고려도경』의 귀부인의 복식 중 두식의 모양을 보면 “출가 전에는 홍색 비단으로 머리를 묶고 그 나머지는 뒤에 내렸으며”라는 문구가 있다. 이것은 삼국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미혼녀의 발양으로 고려시대 서민층 미혼녀들의 두식 모양이 목 뒤에서 머리를 묶는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귀족층의 나이 어린 소녀는 머리를 피발하지 않고 땀아 내렸거나 부인의 엷은머리 형태를 하였다. 삼국시대처럼 엷은머리와 쪽머리가 가장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이었지만 귀밑머리를 실타래처럼 틀어 오른쪽 어깨에 드리움으로써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기도 했다. 미혼의 여성들은 붉은 띠로 머리의 일부를 묶고 나머지는 뒤로 내렸다. 비녀의 사용이 많아져 옥잠, 호도잠 등의 꽃과 보석으로 장식된 비녀와 가체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미혼의 남성들은 검은 띠로 머리를 묶었고 원나라의 침략을 받은 후에는 변발을 하기도 했다. 고려 초에는 가체의 사용이 일반화 되지 못하였으나 말기에 이르러 원나라 공주들이 유행시킨 예가 가체의 사용이

15) 조혜정, 전게서, p19

16) 현재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쓰는 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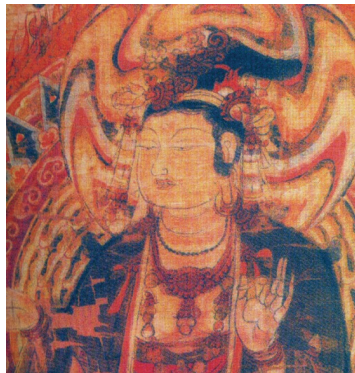
17) 검은 형격으로 위는 둥글고 뻐죽하게 만들었으며, 뒤는 넓고 긴 자락을 늘어지게 대고 양옆에는 끈이 있어서 뒤로 돌려 매게 되어있는 머리에 쓰는 건

18) 조혜정, 전게서, p19

19) 조혜정 전게서, p20

다. 당시 가체는 굉장한 사치의 일종으로 부유함과 신분의 상징이었고, 왕실을 중심으로 귀족층에게 퍼져나갔다.

고려시대의 여성의 머리 종류는 대표적으로 추마계, 아환계, 조천계, 쌍수계 등이 있었다.



<그림5> 추마계

(출처: 손미경, 한국 여인의 발자취, 이환, 2004, p155 中 돈황)

추마계는 말에서 떨어졌을 때와 같은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양은 머리카락을 위로 올려 계를 만드는데 그것이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약간 흔들거리는 형상을 말한다.²⁰⁾ 처음 이 머리모양은 상류계급에서만 유행했다가 당, 송을 거치면서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널리 유행되었다고 한다. 이 형태는 중국에서 들어와 고려시대에 유행한 형태인데 처음에는 사가에서 유행하다가 점점 기녀들의 머리모양으로 갔다고 한다.

20) 손미경, 한국 여인의 발자취, 이환, 2004, p159



<그림6> 아환계

(출처: 정매자 외, 우리나라 옛 여인의 머리 치장, 청구문화사, 2008, p70)

아환계는 고려에도 존재하였고 조선시대까지 형태가 전해졌으리라 짐작케 하는 대표적인 머리모양 중 하나로 송은 박익 선생의 고분벽화에서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²¹⁾ 갈래 머리로 두 가닥으로 땀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두’라고도 부르고²²⁾, 환계(둥근모양)를 양쪽 귀밑으로 내리고 머리 위로는 아계(두 가닥으로 땀은 머리)처럼 보이는 형태를 하지만 다환계를 올리기도 하고 연꽃모양 장식이나 모자를 쓰기도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7> 조천계

(출처: 손미경, 한국 여인의 발자취, 이환, 2004, p163, p169)

21) 조혜정, 전게서, p27

22) 네이버 지식백과, 아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1035>

조천계는 대표적인 가체를 사용한 머리 형태로서 머리카락을 모두 머리정상 위로 빗어 올린 다음 원기둥 모양의 계 두 개로 그 모양을 만들었다. 두 개의 계 모두 앞쪽으로 기울인 후 가능한 한 높게 올렸으며 밑으로 빙 돌려서 비녀와 꽃이를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계의 앞 끝은 높게 하여 계 위에 머리꾸미개로 장식하였으며,²³⁾ 고가품으로 귀족층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림8> 쌍수계

(출처: 손미경, 한국 여인의 발자취,이환, 2004, p192 中 혁기사녀도-당)



<그림9> 각시탈

(출처: 임린, 한국 여인의 전통 머리모양, 홍기원, 2009, p90)

쌍수계는 원나라에 전해진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머리 모양으로 우리 고유의 머리 모양이 원나라 여성화 된 머리이다. 머리 양쪽 귓가에서 수발 상태로 늘어뜨리거나 땅아서 늘어뜨리는 형식이며 쌍수계처럼 계를 올리지 않고 늘어뜨리는 형식은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치면서 유행했던 머리 모양이다.²⁴⁾

각시탈에 나타난 머리의 모양은 고려시대에 유행한 머리로 엷은머리의 변형된 모양으로 머리 위에 한일자로 타래의 큰머리를 엷었고 다시 두 귀를 덮으며 좌우로 똑같이 머리채를 턱 아래까지 드리운 쌍수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²⁵⁾

23) 손미경, 전개서, p165

24) 김영숙외, 한국복식사, 청주대학교출판부, p19, 22

25) 임린, 한국 여인의 전통 머리모양, 홍기원, 2009, p90



<그림10> 상투와 민상투

(출처: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터,
<http://www.culturecontent.com>)



<그림11> 개체변발

(출처: 김영숙, 한국복식사, 청주
 대학교출판부, 1988, p115)

상투는 남자가 총각 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가도 결혼을 하거나 관례를 치르면 머리털을 끌어 올려 정수리 위에서 틀어 감아 삐죽하게 만들고 거기에 동곳을 꽂아 고정시킨 다음 망건을 썼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많이 보이고 경주 금령총 출토 도제 기마인물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상투를 옛 ‘사기(史記)’와 ‘한서(漢書)’에서는 추계(椎結)로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동아시아의 흉노족(匈奴族)이나 숙신족(肅愼族)은 다 변발이었고, 동호족(東胡族)은 곤두였으며, 묘족(苗族:越南族)과 우리 민족만이 추결을 하고 있었다. 상투는 트는 방법이나 머리 위에 동곳(상투에 꽂는 것)을 삽입하는 것 등에 다소의 변천이 있기는 하였으나 계속 전승되어 왔다.²⁶⁾

민상투는 하류층의 결혼한 남성이 트는 머리모양새로서 수식 없이 상투만 엮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민상투, 또는 상투의 속어인 ‘고작’이라 했다.

개체변발은 머리 변두리를 깎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털만 남겨 땡아 늘인 것이다. 충렬왕이 세자로 있을 당시 원에서 귀국할 때 변발 호복으로 입국 하였으며 즉위 후에는 영을 내리어 모두 몽고의 의복과 개체변발을 할 것을 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서민 모두 따른 것은 아니고 지배계급인 관료층과 출세를 희구하는 일부 지식층에서만 호응하였다.²⁷⁾

26)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 남자의 머리모양, <http://100.naver.com/100.nhn?docid=725925>

27) 김영숙, 전게서, p114

4) 수식 및 장신구



<그림12>비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미, 통천문화사, 1988, p72)

비녀는 재료에 따라 금비녀, 은비녀, 백동비녀, 놋비녀, 진주비녀, 영락비녀, 옥비녀, 비취비녀, 산호비녀, 목비녀, 대(竹)비녀, 뿔(角)비녀, 뼈(骨)비녀 등으로 나뉘어진다.²⁸⁾ 상류층 여인들은 금, 은, 진주 등을 주로 애용했고, 서민층은 보통 나무나 뼈, 뿔 등으로 만든 비녀를 머리에 꽂았다. 비녀는 신분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용잠²⁹⁾은 왕비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서민은 혼례식 때만 쓸 수 있었다. 봉잠은 왕비와 세자빈만 사용했고 상류층 부인들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이 많은 비녀를 사용했으며 수절하는 부인은 매죽잠이나 죽잠을 꽂았다. 서민들은 대개 놋쇠, 백동, 검은 빛의 물소 뼈로 만든 두잠, 민잠을 꽂았다.

28) 손미경, 전계서, p442

29) 비녀의 머리에 용을 새긴 것



<그림13>떨잠



<그림14>뒤꽃이와 빗치개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복식 2천년, 신유, p47, p48)

전통 공예 중 여인의 장신구로는 비녀, 뒤꽃이, 떨잠 등 머리꽃이들의 수공예품들이 있다. 큰머리, 어여머리의 앞 중심과 양옆에 꽂는 어리꾸미개로 서 떨철반지라고도 한다. 원형, 각형, 나비형의 옥판에 칠보, 진주, 보석 등으로 꾸미고, 은사로 가늘게 용수철을 만들어 끝에 은으로 만든 꽃, 새 모양의 떨새를 붙인다. 떨잠은 옥판 위의 떨새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³⁰⁾ 보통 어여머리를 하고 큰 행사를 치를 경우에 많이 쓰는 떨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머리 앞 중앙에 꽂는 것은 선봉잠이라 하고 머리 양편에 꽂는 것을 떨잠이라고 부른다. 궁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나 많이 하는 것이고 여염집 부인들도 큰 잔치가 있으면 떨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떨잠의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것은 보석이고 막대는 도금이라 웬만큼 부유해서는 떨잠을 가지긴 어려웠다.

30) 네이버 백과사전, 떨잠, <http://100.naver.com/100.nhn?docid=53050>



<그림15> 고려황후 칠휘이봉관 복원도

(출처: <http://blog.naver.com/spiritcorea/120006758801>)



<그림16> 공민왕과 왕비

(출처: 박정자 외, 역사로 본 전통머리, 광문각, 2010, p43)

<그림15>과 <그림16>의 고려 공민왕조 왕비의 칠휘관은 공민왕 19년 태조 고황제의 효자황후(孝慈皇后)가 공민왕비에게 하사한 것으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왕비가 착용하였던 관모이다. 고려 말 중국에서 들여와 공민왕비가 적의와 함께 쓴 기록이 있다.³¹⁾ 모양은 7마리의 꿩에 속하는 새의 깃털과 2개의 봉화(鳳花)로 장식하고 비녀는 9수의 작은 꽃을 합쳐 큰 꽃같이 보이게 장식하였다. 양쪽 귀밑머리에는 9전(鈿)을 꽂았다.



<그림17> 고고리



<그림18> 족두리

(출처: 장숙환, 전통 장신구, 대원사, 2002, p109) (출처: 손미경, 한국 여인의 발차취, 이환, 2004, p414)

31) 네이버 지식사전, 칠휘이봉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5756>

원의 두발 풍속은 고려의 두발에도 영향을 주었다. 족두리는 몽고에서 기혼녀가 외출할 때 쓰는 일종의 모자이며 기혼녀의 수식이었다. 원 간섭기에 족두리가 들어와 고려의 궁양이 되었으며 족두리는 화관보다 훨씬 후대까지 널리 통용되었고 두발 장식품으로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³²⁾ 원나라와의 혼인이 많았던 고려 후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고려의 족두리는 조선의 것보다 모양이 크고 높이도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17>의 고고리는 원에서 왕비가 사용한 바 있으며 지금의 족두리는 고고리의 음이 와전되어 족두리가 된 것으로 고려왕비가 된 원 공주들은 고고리를 쓰고 있었다.



<그림19> 최유선 상
(출처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1) 경춘사,1996,p371)



<그림20>강민첨 상
(출처 류희경외, 우리 옷 이찬년 미술문화,1994,p47)



<그림21>정몽주 상
(출처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1) 경춘사,1996,p371)

고려의 복두는 신라의 김춘추가 당으로부터 사여 받아 온 것으로 남자의 관모로 널리 착용하였다. 원 간섭기에 복두는 신분의 구별 없이 일반적으로 착용하였다. 또한 관리의 관모나 병사의 쓰개 등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쓰개는 모두 관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관은 착용자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던 두식이었다. 선관이나 유관은 각각 고관과 유학자들을 지칭하고 있어 용어 자체가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원 간섭기에는 남자의 편복 착용 시 몽골식의 평정건이나 판립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³³⁾

32) 조혜정 전개서, p42

33) 조혜정, 전개서, p38-39

Ⅲ. 쌍화점 제작사례

1. 영화 “쌍화점” 개요



<그림22> 영화 “쌍화점” 포스터(출처: 오피스픽처스)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영화 “쌍화점”은 2008년 오피스픽처스에서 제작하고 유하 감독이 연출한 조인성, 주진모, 송지효 주연의 멜로드라마 사극 영화이다.

영화 “쌍화점”은 고려 말 공민왕 시절을 시대적 배경으로 상정하나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허구의 창조적 인물과 사건으로 구성되었다.

“쌍화점”이란 제목은 자유분방한 연인들을 묘사한 동명의 고려가요에서 따온 것으로 이를 제목으로 쓴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영화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고려 왕실의 은밀한 이면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영화가 주목하는 것은 공민왕에 얽힌 비사인데 고려 말 대외적으로는 원나라로부터 자주

성을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으로부터 왕권강화를 꾀했던 것으로 알려진 공민왕과 그의 제위시절에 존재했다는 특별관청 ‘자제위(子弟衛)’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사대부가의 자제들 가운데 미소년들을 선발하여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인재들로 성장시켜 왕의 최측근에서 호위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제위’는 신돈이 정치에서 물러난 후, 공민왕이 좌절된 개혁정치를 추진하기 위해 친왕 세력을 육성하고자 설치했다는 일설부터, 공민왕의 침소까지 드러내며 시중을 들어 궁중의 풍기문란을 조장한 주역이라는 가설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렇듯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영화 “쌍화점”은 공민왕과 이들 관계의 숨겨진 역사적 공백에 사랑, 음모, 배신 등 드라마틱한 사건을 부여하여 역사 속에 감춰졌던 금기의 기록을 운명의 대서사극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고려 가요 『쌍화점』은 충렬왕 즈음에 지어져 이 후 궁중연회에서 자주 불렸던 노래라고 하며 영화에서도 왕이 이 노래를 연회에서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쌍화’란 만두를 말하는 것으로 쌍화점은 만두가게란 뜻이다. 이 가요는 원래 남녀 사이의 노골적인 애정행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조선 성종 때는 이를 남녀상열지사 또는 음사(淫辭)로 취급하기도 했다.³⁴⁾

고려가요 『쌍화점』의 내용은 원나라의 간섭과 왕권의 동요가 만연한 당시의 사회상을 풍자한 것으로도 해석되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영화 “쌍화점”의 배경이 되고 있다.

영화는 고려왕(주진모 분)과 왕이 총애하는 호위무사 홍립(조인성 분)을 수장으로 한 36인의 미소년 친위부대 ‘건룡위’, 그리고 원나라 출신의 왕비(송지효 분)를 둘러싼 사랑과 배신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는데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원 간섭기 고려의 어린 왕은 측근 사대부들의 자제 중에 미동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문무를 겸비한 자신의 정예로운 친위부대인 ‘건룡위’로 키우기 위

34) 윤성현, 우리 옛노래 모듬, 도서출판 보고사. p197~201

해 궁에 살게 하였으며 항상 곁에 두고 총애하며 함께 성장한다. 그 중 ‘건룡위’의 수장인 홍림을 항상 곁에 두고 사랑하게 된다.

후사문제를 빌미로 원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되고, 정체불명의 자객들이 왕의 목숨을 위협하자, 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여자를 품을 수 없는 왕은 고려의 왕위를 이을 원자를 얻기 위해 홍림에게 왕후와의 대리합궁을 명한다. 왕은 홍림을 사랑하고 홍림은 왕에 대한 충성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왕의 명령이라면 목숨처럼 따르는 홍림은 결국 왕후와의 대리합궁에 응하게 된다.

이 후 홍림과 왕후 사이에 남녀 간의 사랑에 눈뜬 애정구도가 펼쳐지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왕은 홍림과 왕후의 관계가 욕정이 아닌 연모의 관계로 흐르자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홍림은 이제까지 왕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사랑이 아닌 충성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홍림과 왕후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 되고 왕은 눈앞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결국 홍림을 거세하고 만다. 이후 왕이 자신의 뿌리를 잘랐다는 것과 왕후를 죽였다는 오해에서 시작된 복수심으로 홍림은 어린 시절부터 흠모하고 따랐던 왕을 배신하고 왕비와의 사랑을 택하면서 왕을 죽이고, 그들의 사랑은 음모와 권력에 의해 비극적인 종말로 최후를 맞는다.

2. 영화 “쌍화점” 주요 등장인물 캐릭터 분석

1) 고려왕 - 주진모 분

원의 간섭과 극심한 조정의 불신에 맞서 흔들리는 나라를 지켜내려는 고려 말의 왕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왕권을 위협하는 대신들의 음모를 철저히 파헤쳐 응징하는 등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의 모습이다. 왕권을 위협하는 후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하 이상으로 아끼며 동성애적 사랑의 관계에 있는 홍림에게 왕후와의 대리합궁을 명하고, 이 후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 삼각구도의 정점이라 볼 수 있으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운 결정권자로서 끊임없는 사랑을 갈구하는 고독한 인물이다. 왕으로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면으로 광기를 품고 있는 인물로, 모든 것을 내주며 끝까지 곁에 두고 지키고자 한 홍림을 시험하면서 자신을 선택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나 홍림이 온 힘을 다해 벗어나려는 데에 절망하면서도 그 사랑을 끝내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정략 결혼한 왕후에게 자신의 남자 홍림을 빼앗겨 버리고 질투심을 갖는 걸은 의젓한 남자이나 속은 외로운 여자와 같은 심정을 지닌다. 단호한 개혁정책과 달리 홍림과의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않으며 최후까지 홍림을 위해 가야금을 타고, 같이 사냥하는 그림을 그리는 로맨티스트의 모습을 보이며 섬세하고 다정한 인간미를 느끼게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배신감에 극단적으로 치달는 인물이다.

2) 홍림 - 조인성 분

홍림은 명문자제들로 구성되어 왕을 호위하는 친위부대 ‘건룡위’의 수장으

로 어린 시절부터 왕의 최측근에서 지극한 충정을 보여 왕에게 각별하고 뜨거운 충애를 받지만, 그런 모습이 왕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홍림에게 왕은 신과 같은 절대자이며 존경의 대상이자 아버지와 같은 푸근함까지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초반부 ‘건륭위’ 부하인 한백의 사건 처리를 위해 아버지에게 때를 쓰듯 애교로 왕의 마음을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왕후와 대리합궁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왕의 명을 받든 이후로 견잡을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다. 왕의 사랑 속에서 궁에서 자라 남성간의 애정을 지극히 당연한 천성의 영역으로 알았었지만 여자와의 잠자리를 갖게 되면서 자신의 이성애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며 왕후와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왕이 선택한 애인이자 왕후의 정인이기도 하며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왕과 왕후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옴므 파탈(Homme Fatale)로 결국 파멸을 맞게 되는 인물이다. 왕후와의 격렬한 사랑 후에도 왕에 대한 충정과 애정을 끝내 버리지 못하지만 왕의 독기를 품은 빛나간 사랑에 애정을 포기하고 왕의 칼을 받아들이면서 사방이 짝 막힌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희생하는 남자가 된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보다는 자신의 짧은 생명과 바꿔 진정한 남자가 되기를 택한다.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순수한 청년으로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왕과 왕후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비극의 원인이 되는, 사랑의 배분에 능수능란하지 못한 인물이다.

3) 왕후 - 송지효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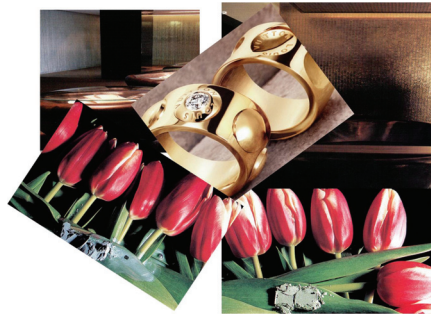
정치적 복속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의 정책에 따라 고려왕과 정략 결혼한 원나라 황족출신의 왕후로 노국공주를 모델로 삼았다. 고려왕을 위협하는 원나라 사신과 원나라에 영합하여 왕권을 조롱하는 대신들에게 호통을 치며 왕을 지원하는 위엄 있는 왕후이자, 한결 같은 마음으로 왕을 바라보

는 정숙한 여인이다.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지아버인 왕의 곁을 지키며 바라보지만 끝내 외면당하고, 도도한 자존심을 지녔던 그녀는 보답 받지 못하는 사랑에 배신감과 절망을 느낀다. 잉태만을 위해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야하는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며,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항상 질투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홍림을 받아드린다. 그러나 자신보다 홍림을 더 가까이 하는 왕 때문에 괴로워하며 질투한 그녀가 나중에는 홍림을 사랑하게 된다. 원나라 출신임에도 고려의 자주 국권을 외치던 그녀였으나 홍림을 사랑하게 된 이후 삶의 목표는 홍림에게로 집중된다. 궁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정인인 홍림과 조용한 곳에서 오순도순 살고 싶은 뿐인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왕과 홍림 사이에 대척점으로서의 역할이 주가 되어 왕과 홍림의 관계를 빚내주는, 사랑을 갈구하는 기쁨 있는 여인이다.

IV. 분장 및 스타일 디자인 제작사례

1. 고려왕

1) 인물의 배색 및 디자인 이미지



<그림23> 왕의 배색 (출처:연구자)

왕의 기본색으로는 금색, 짙은 감색, 붉은 색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극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금색은 왕으로서의 품위 있는 고급스러움과 위엄을 나타내고, 짙은 감색은 차가운 냉정함, 붉은 색은 강렬한 열정 등의 감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24> 왕의 참고 이미지

(출처: 左로부터, 영화 <황후화> 황제, 드라마 <신돈> 공민왕, 드라마 <태조 왕건> 견훤왕, 드라마 <태왕사신기> 광개토태왕)

고려왕의 기본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 사극에서의 왕의 이미지를 참고하였다. 각 인물들의 피부 톤(Tone)을 살펴보고 수염이미지와 눈썹모양을 비롯하여 상투를 올릴 때의 앞머리의 모양과 볼륨(Volume)감의 표현방식, 또한 각 장신구들의 문양과 크기는 물론 그 쓰임새 등을 참고함으로써 인물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그림25> 왕의 기본 디자인 이미지(출처: “쌍화점” 미술팀)

왕의 기본 이미지는 극중 고려왕의 모티브인 고려 후기의 공민왕처럼 개혁 군주로서 그림, 음악과 무술 등에 능한 젊은 느낌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였다. 또한 고려왕의 대외적 활약을 보여주는 이미지보다는 인물의 내면과 인간적 본질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26> 고려왕 역인 배우 주진모를 모델로 디자인한 인물 컨셉 이미지(출처: 연구자)

왕의 기본 이미지를 결정한 후 <그림 26>과 같이 고려왕 역을 맡은 실제 배우를 모델로 인물의 기본 컨셉(분장, 헤어, 수염, 장신구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일차적인 이미지 스케치(Sketch)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위의 작업을 시작으로 반복되는 수정,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고려왕의 분장 컨셉(Concept)과 이미지를 결정하였다.

2) 분장 및 헤어 디자인 작업

영화의 스토리와 정서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로 표현하기 위한 분장 컨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테스트(Test)의 과정이 중요하며, 고려왕의 분장, 헤어, 수염의 컨셉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래의 테스트의 과정을 거쳤다.



<그림27> 왕 민상투 머리 스타일과 피부 톤 테스트(출처: 연구자)



<그림28> 왕 반머리 상투 스타일과 피부 톤 테스트(출처: 연구자)

<그림27>과 <그림28>은 고려왕의 기본 헤어스타일과 피부 톤을 확인하는 테스트로써 실제 배우의 피부 톤에 맞춰 안면 분장을 실시하여 영화 속 고려왕의 톤을 결정하는 목적과 두 헤어스타일을 비교하여 기본 헤어스타일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그림29> 왕 반머리와 수염 테스트(출처: 연구자)

<그림29>는 고려왕의 기본 헤어스타일이 결정된 이후 수염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테스트이다.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를 토대로 고려왕의 기본 분장 컨셉이 결정되었는데 왕의 피부는 밝은 톤으로 깨끗하게 함으로써, 무사인 홍림의 어둡게 표현한 피부 톤과 대비감을 주고자 하였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가느다란 아이라인을 그려서 그윽하고 깊이 있는 눈매를 만들어 주었다.

왕은 기본적으로 강인하지만 홍림을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왕으로서의 위엄과 고급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의 길이를 다른 인물들보다 길게 하고 윤기를 나게 하였으며, 반면 홍림과 함께 있을 때는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려서 홍림에 대한 왕의 편안함 및 부드러운 여성성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둘 사이의 친밀한 감정을 나타나게 하였다.

같은 공민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신돈>에서는 공민왕의 모습을 수염이 있고 근엄한 왕으로 표현 하였는데 주로 사극 영화에서 왕의 권위를 수염으로 나타내준다. 그러나 본 영화에서는 수염이라는 요소를 과감히 배제하였는데, 이는 <그림29>의 테스트를 통해 홍립과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스타일과 수염이 언밸런스(Unbalance)한 느낌을 확인하였고, 왕으로서의 모습보다 왕과 홍립, 두 인물간의 감정이 더 중요한 극의 정서와 건륭위라는 왕의 친위부대와의 조화와 상호 연계성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결정하였다.

3) 장신구 디자인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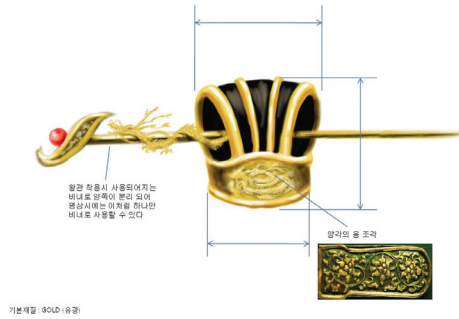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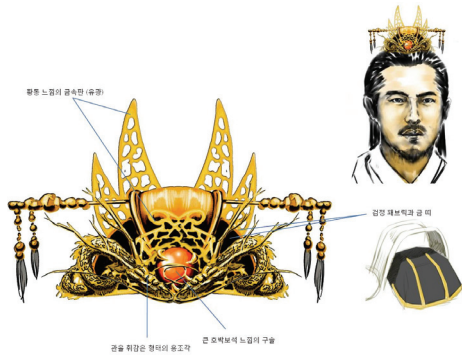
왕의 장신구는 왕관이 대표적이며 각각의 장면에 따라 그 크기와 형태를 다르게 하였다.

왕의 장신구 소재는 주로 금을 사용했고 문양은 용과 구름을 기본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모두 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왕의 보석으로 루비와 호박을 사용했는데 루비는 왕권의 강함과 단단함을, 호박은 인물의 부드러움을 표현하였다.



<그림30> 왕관 디자인(출처: 연구자)



<그림31> 왕 집무관 디자인(출처: 연구자) <그림32> 왕 상투관 디자인(출처: 연구자)

<그림30>의 왕관은 두 개의 관이 합쳐져 하나의 관 모양으로 보이게 설정한 관으로 큰 관과 중간 관, 그리고 비녀로 구성되었으며, 시각적으로 왕의 위엄과 존재감을 나타내었고, 중앙에 검정색으로 포인트(Point)를 주어 힘의 중심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31>은 원의 간섭 아래 있는 현실을 감안한 작은 형태의 관으로 사신 영접 때나 왕의 집무시 썼으며 관의 크기는 작지만 용 두 마리가 호박을 여의주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호하며 감싸는 형상으로 왕의 위엄과 기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림32>의 관은 왕의 위엄보다는 최소한의 격식만을 갖추어 쓸 수 있는 관으로 평상시에 주로 썼으며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자 하였다.



<그림33> 왕 용 장식 디자인(출처: 연구자)

액션(Action) 장면을 소화할 때는 <그림33>과 같은 비단 끈에 용머리 장식으로 왕의 위엄을 살리면서 간편하고 활동적인 느낌으로 왕을 묘사했다. 침소에서나 그 외의 소박한 왕의 모습이 보여 질 때에도 비녀 혹은 띠나 끈 등의 재질이나 문양 등에 디테일을 주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보이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상투관이나 비녀 등의 장식에는 용 문양을 기본으로 하여 응용한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었다.



<그림34> 왕 귀걸이 디자인
(출처: 연구자)

고증에 의하면 남성의 귀걸이가 상용화된 것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그 대상은 왕과 귀족과 같은 상류층의 소유물이었으며 고려시대의 왕들도 귀걸이 착용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본 영화에서 고려왕이 귀걸이를 착용한 이미지는 최대한 배제하였는데 이는 분장과 헤어, 수염 등의 컨셉이 왕의 여성성을 부각한 관계로 장신구까지 여성성을 드러내면 여성 이미지의 과잉 및 자칫 위엄 있는 왕의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증에 따라 영화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으로 꼽히는 연등회 장면에서는 <그림34>와 같은 귀걸이를 착용해 주었다.

4) 캐릭터 이미지 결과 분석



<그림35> 고빨 걸린 왕(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고빨에 걸린 왕의 모습을 그린 장면으로 혈색이 없고 초췌한 왕의 모습을 위해 입술 톤을 없애고 마른 입술로 연출하였고 턱과 볼 사이에 셰이딩(Shading)을 넣어주어 수척하게 보이게 하였다.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려 병상에 누워있다 일어난 모습으로 연출하여 평소의 집무 볼 때의 왕보다는 차분하면서 흥림과 함께 있을 때의 부드러운 모습까지 표현하였다.



<그림36> 명심정에 나들이 중인 왕과 왕후(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명심정 나들이 장면으로 상투는 기존의 왕이 가진 무게감과 단정함을 주었고 상투관은 직무를 볼 때 보다는 단순한 문양과 가벼운 재질의 관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는 본 씬(Scene)에서 등장하는 자객의 침입으로 인한 액션 장면을 찍을 때 배우가 불편하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장신구를 가볍고 작은 것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림37> 원 사신을 맞아 부복하는 왕(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원나라 사신 앞에 부복하는 왕은 사신 영접의 격식을 차린 의상을 입고, 원 부마국 왕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어 크기가 큰 왕관 보다는 작은 관을 쓴 대신 용장식이 화려한 집무관을 써서 왕의 위엄과 기상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고귀한 느낌을 주기위해 곱고 윤기 나는 머리 결을 만들어 주었고, 원나라의 속국이지만 자존감을 표현하기 위해 어두운 피부 톤과 검정색 아이러이너를 사용해서 눈매에 힘을 주고, 눈썹을 굵게 그려 왕의 힘을 나타내 주었다.



<그림38> 변복을 하고 홍림을 기다리는 왕(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집”)

벽란도 갈 때 입을 상인복을 입고 변장한 왕의 모습으로 궁에서의 왕과는 다른 느낌을 주고자 머리카락을 어깨에 길게 늘어뜨리지 않고 민상투로 올려 묶은 후 무명의 띠와 끈으로 장식하여 평범한 상인처럼 보이게 하였다. 또한 변복한 왕의 피부 톤은 기존보다 한 단계 어둡게 하여 남성미를 보이게 하여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 차별화를 두었다.



<그림39> 연등회가 열리는 장면(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집”)

연등회는 왕후의 회임을 기원하는 궁의 커다란 행사로 이 장면에서는 격식을 차린 의상과 왕관을 썼으며 왕의 상징인 용장식이 크고 화려하게 보이

는 관과 비녀를 꽂은 고려왕의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또한 당시에 남자도 화장을 했다는 고증을 바탕으로, 연등회 장면에서는 왕이 화장을 한 것으로 설정하여 브라운 톤의 섀도우(Shadow)를 써서 그윽한 눈을 표현해주고 붉은 기가 도는 입술로 살짝 칠해주는 정도의 거부감이 들지 않는 선에서 연출하였다. 또한 이 장면에서 착용하는 장신구 등의 디자인은 숭불정책이었던 고려의 시대상을 보여주고자 불교 색채를 가미하여 디자인해 주었다.



<그림40> 수라상 앞에 마주앉아 있는 왕과 홍림(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집”)

왕의 침소이지만 병상이었을 때와는 다르게 단정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모습으로 연출하였고 피치 톤(Peach tone)의 고급스러운 비녀로 포인트를 주었다. 홍림과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반 올린 머리를 하여 약간의 단아함 느낌마저 주었다.

장면의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투를 추마계의 변형으로 틀어 올려 표현해 주었다. 왕은 다정하게 웃고 있지만 얼굴 톤은 혈색 없는 초취한 메이크업을 하여 측은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그림41> 왕과 홍림의 검술대결(출처: 오피스픽쳐스 “쌍화점”)

홍림의 실력을 시험하겠다고 하며 검술대결을 벌이는 장면으로 왕은 홍림을 기다리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켕한 눈이지만 눈매를 살리기 위해 검정색 라이너로 점막을 매워주어 살기를 느끼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또한 초췌한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입술 선을 없애고 브라운 톤으로 눈 밑을 어둡게 하였다. 홍림을 공격하는 왕의 별경게 달아오른 얼굴 위로 흐르는 땀을 연출하였으며, 액션 장면에서 무겁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비녀와 상투관 대신 용 장식이 있는 비단 끈으로 연출하였다. 왕의 긴 머리가 빛을 발하는 씬으로 왕의 춤추는 듯 칼을 쓰는 무술 액션에 맞추어 찰랑거리는 머리는 액션의 리듬감과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그림42> 홍림의 거세를 지시하는 왕(출처: 오피스픽쳐스 “쌍화점”)

격앙되어 홍림의 거세를 명하는 왕의 얼굴은 분노에 찬 모습으로 피부 톤을 다소 어둡게 만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 되게 하고, 눈 주변 또한 붉은 색으로 상기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림43> 왕의 최후(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홍림과 사생결단의 처절한 칼부림을 하는 왕은 취기에 젖은 초췌한 얼굴을 표현하고자 혈색 없는 얼굴에 눈 밑도 깊이 패이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충혈 된 왕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있고, 이마에 흐르는 땀과 얼굴 곳곳에 선혈의 흔적을 연출하였다. 또한 피부 톤을 두 가지로 하여 명암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수척해 보이도록 하였고 붉은 색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붉게 하여 눈 안의 슬픔을 표현해 주었다. 이때도 액션장면으로 장신구를 최소화 하였다.

2. 홍림

1) 인물의 배색 및 디자인 이미지



<그림44> 홍림의 배색(출처: 연구자)

홍림의 색은 회색 톤을 메인(Main)으로 감색과 자색의 포인트를 주었다. 감색의 차가운 느낌과 붉은 자색의 뜨거운 느낌을 중심으로 했으며, 어두운 회색과 자색의 조화를 통해서 고급스러운 느낌과 활동적이고 용맹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45> 홍림의 참고 이미지

(출처: 左로부터, 영화 <연인> 진, 드라마 <태왕사신기> 담덕, 만화 <비천무> 진하, 만화 <베가본드> 미야모토 무사시)

홍림을 위한 이미지 자료들은 전통사극 및 퓨전사극은 물론 만화와 게임 이미지를 막론하고 다양한 장르 속에 등장하는 무사들의 이미지를 참고하였으며, 본 영화에서는 무사로서의 거칠고 야성적인 느낌과 한 여인의 남자로서의 다정한 느낌을 함께 지닌 인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46> 홍림의 기본 이미지(출처: “쌍화점” 미술팀)



<그림47> 홍림 역인 배우 조인성을 모델로 디자인한 인물 컨셉 이미지(출처: 연구자)

홍림의 기본 이미지는 왕의 호위무사 건룡위의 총관이라는 역할에 맞게 무사로서의 강인함과 왕의 동성애적 사랑의 대상, 또는 왕후의 정인으로서 부드러운 모습을 동시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건룡위의 제복을 갖춰올 때는 건룡위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디자인한 띠와 끈으로 장식하여 강한 총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왕과 함께 있을 때는 앞머리를

내려서 좀 더 자연스럽게 편안한 모습이 보여 지도록 하였다. 후반부 왕에 의해 거세를 당한 후 부터는 분노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눈이 붉게 충혈 된 듯 보이고 전체적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이미지화 하였다.

2) 분장 및 헤어 디자인 작업

홍림의 분장, 헤어, 수염의 컨셉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많은 테스트의 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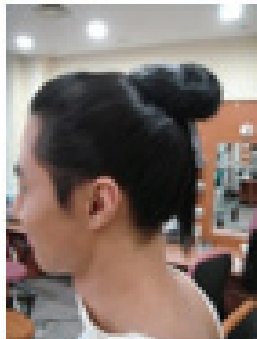
<그림48> 홍림 1차 반머리 민상투 테스트(출처: 연구자)



<그림49> 홍림 2차 반머리 민상투와 피부 톤 테스트(출처: 연구자)

<그림48>은 홍림이 건륭위의 수장으로 보여 지는 장면들의 메인 상투머리로 머리 기장을 정하는 헤어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49>는 1차 테스트 결과에 따라 조정된 머리 기장과 상투의 위치를 바꿔 이미지의 변화를 체크하는 테스트와 무사로서의 홍림의 이미지를 위한 피부 톤을 정하는 메이크업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였다.



<그림50> 홍림 올려 묶은 머리 스타일 테스트(左, 출처: 연구자)

<그림51> 홍림 앞머리 내린 상투 머리와 분장 테스트(右, 출처: 연구자)

<그림50>은 왕후와의 합궁 장면을 위한 테스트로 경건한 의식을 치루는 것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자 깨끗하게 하나로 묶어서 연출해 보았으며, <그림51>은 왕과 다정한 때를 보여주기 위한 헤어스타일과 분장 테스트로 다소곳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를 토대로 홍림의 기본 분장 컨셉이 결정되었는데, 보통의 무사들의 피부 톤이 어둡게 표현된다면 홍림은 일반적인 무사와 달리 그림과 음악은 물론 글도 잘 쓰는 문인의 느낌을 주고자 밝은 피부 톤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총명한 눈을 표현하기 위해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눈매를 또렷하게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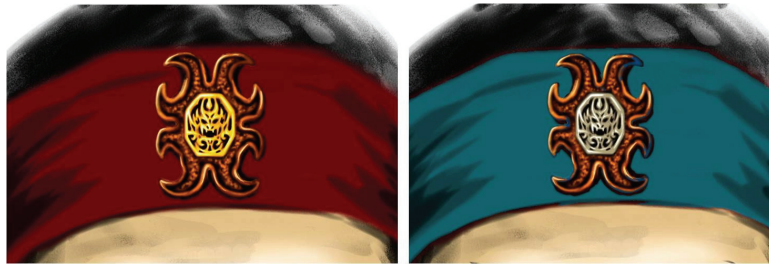
홍림의 헤어는 기본적으로 짙고 곧은 머릿결로 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바르고 곧은 성품을 나타내 주고자 하였다. 홍림은 영화 속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에 따라 헤어스타일도 바뀌어서 연출하였다. 먼저 건륭위의 수장으로 보여지는 장면들을 위해 메인 상투머리로 머리 기장과 상투의 위치를 정했으며 홍림의 머리 기장을 기준으로 건륭위 전체적인 헤어 컨셉을 정리하였다. 건륭위 무사의 기본 헤어는 올백 반머리 상투 스타일이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장면에 따라 변화를 주었다. 왕의 사람일 때는 민상투 올린머리 또는 내린 앞머리로, 왕후의 정인일 때는 가장 내추럴(Natural)한 머리와 비단 끈 등으로 조금씩 이미지를 바꾸면서 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왕과의 합궁 장면에서는 경건한 의식을 치루는 것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자 헤어를 깨끗하게 하나로 묶어서 연출했는데 혼인하지 않은 남자가 상투를 틀기엔 고중에 맞지 않아 상투의 느낌이 들면서도 여인들이 했던 추마계 스타일과 비슷하게 변형하여 만든 이미지를 통해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왕과의 다정함을 보여주기 위한 헤어스타일로 앞머리를 내린 상투 머리를 사용하여 마치 여성과 같이 다소곳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메이크업 또한 평소보다 밝고 화사한 피부 톤으로 표현하고 브라운(Brown)계통의 새도우로 그윽한 눈매를 만들어냈다.

홍림의 수염 컨셉은 젊은 청년의 이미지와 무사로서의 강인한 남성적인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하고 동성애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 극중 더 중요한 내용이기에 수염을 배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장신구 디자인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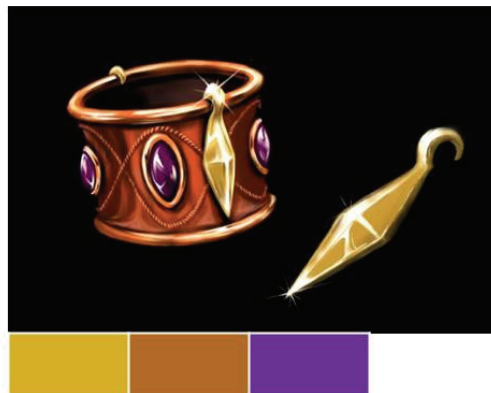
홍림의 장신구는 대표적으로 두건과 상투 머리장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건은 비단 소재로 왕의 친위부대원으로서 왕의 장식인 용 문양 장식을 변형한 작은 용 장식을 넣었으며, 상투 머리장식은 행사가 있을 때에 쓰는 링

(Ling)장식 관과 액션 장면을 위한 가죽끈, 비단끈으로 구성하였는데, 링 장식관은 위엄 있는 모습을, 끈은 무사다운 강인함과 함께 역동성과 활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해 주었다.



<그림52> 홍림 두건 디자인(출처: 연구자)

홍림의 두건은 <그림52>의 디자인과 같이 의상에 따라 어두운 자색과 감색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덧대는 머리장식은 계급에 따라 홍림은 구리바탕에 금 용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어 사용함으로써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주었고, 나머지 건룡위들은 은재질의 용 장식으로 차별화 하였다



<그림53> 홍림 링 장식 디자인(출처: 연구자)

링 상투관 장신구는 <그림53>에서 보듯이 초반 디자인에서는 보석의 색상을 보랏빛으로 설정하였지만 실제 영화에서는 달리 표현하였는데, 이는 왕의 호위무사로서 보석의 색상을 왕과 맞추려는 의도와 건륭위의 수장으로 서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 주고자 홍림과 일반 건륭위의 보석 색상을 달리 구분한 것으로 홍림은 왕의 관처럼 붉은 보석을 쓰고, 일반 건륭위들은 검정색 돌을 사용하였다. 또한 유사시 표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신구를 달아주어 무사의 장신구로써의 느낌을 주었다.



<그림54> 홍림 상투 끈 디자인(출처: 연구자)

<그림54>와 같이 상투 장신구로 가죽 끈과 비단 끈을 제작하였는데 이는 과한 장신구는 액션을 하는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과를 주기위해 만들어 주었다. 또한 홍림의 상투를 두 가지 색상의 가죽 끈을 끈 형태로 묶은 후 보석으로 장식된 골드 클립(Clip)으로 고정해 주었는데 이를 통해 자유롭고 활동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림55> 홍림 비녀 디자인(출처: 연구자)

홍림이 착용한 비녀는 <그림55>와 같이 무광의 밝은 청동 느낌으로, 봉의 형태가 아닌 검의 형태로써 유사시 단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캐릭터 이미지 결과 분석



<그림56> 왕에게 죽을 먹여주는 홍림(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아픈 왕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간호하는 장면으로 보통의 왕과 신하의 관계보다는 더 편안함과 친밀함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머리띠나 장식을 하지 않고 앞머리를 내려서 왕과의 거리감을 없애 주었다. 전체적으로 피부를 밝게 표현해서 배우의 짙은 눈썹과 붉은 입술을 강조함으로써 준수한 용모를 돋보이게 하였다.



<그림57> 명심정에서 왕을 호위하는 홍림(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나들이를 나온 왕과 왕후를 수행하는 호위무사로서 건룡위 제복을 갖춘 모습이다. 연례적인 행사나 격식을 갖추고 건룡위로서 집무를 수행할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복을 갖추어 입었으며 이마에 두른 띠는 건룡위를 상징하는 용 문양으로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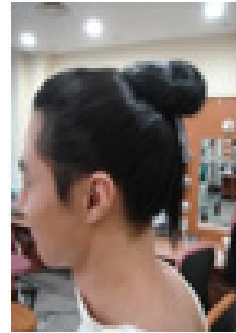
피부는 중간 톤으로 무게감을 주고 배우의 붉은 입술은 톤 다운(Tone down)하고 턱 선에 명암을 주어 각을 만들어 남성미를 주었다.



<그림58> 자객의 습격으로 다친 왕을 지키는 홍림(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왕을 지켜내지 못한 호위무사 건룡위의 총관으로서 자신을 자책하며 왕의 곁을 지키는 홍림의 모습은 창백한 피부 톤을 연출하기 위해 밝은 색 파운데이션(Foundation)을 사용하고, 어두운 톤으로 다크 서클을 만들어 썩은 눈으로

표현해 주었다. 입술은 라텍스(Latex)를 이용해 튼 입술을 만들어 주었고 붉은 톤을 감해 주었다. 살이 많이 빠져 보이게 하려고 턱 선을 가늘고 뾰족하게 셰이딩 하였다.



<그림59> 왕후와의 합궁(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왕후와의 합궁 장면으로 편안한 잠자리라기보다는 왕의 명령으로 의식을 치르는 것과 같이 단정하게 연출하였으며, 추마계를 연상시키는 헤어스타일로 앞머리를 늘어뜨리지 않고 올려 묶어 고려 여인 같은 느낌을 주도록 상투를 변형해 주었다. 피부는 환하게 하여 윤기 있어 보이게 표현해 주었다.



<그림60> 벽란도에서 변복한 홍림(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벽란도에서 무사복으로 변장하여 탐문수사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왕의 호

위무사 건륭위가 아닌 평범한 무사 복장으로 무명의 띠와 끈을 사용하였다. 무사답게 어두운 피부 톤으로 표현했으며, 좀 여위어 보이도록 하기 위해 셰이딩을 주었다. 인물의 심리변화를 느끼게 하는 첫 장면으로 기존의 상투의 계를 길게 늘어뜨려 혼란스러운 심정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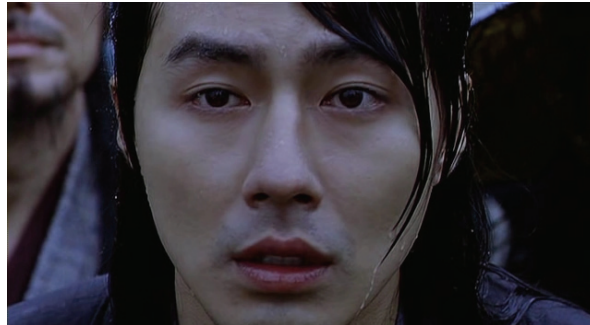
<그림61> 영수전 침소에 모인 세 사람(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왕후와의 합궁 후, 세 사람이 어색한 분위기로 마주 앉아 있는 장면으로 예전과는 다른 심리상태의 변화를 감추려는 홍림을 보여주기 위하여 초반에 왕과 함께였을 때처럼 앞머리를 내리고 눈 꼬리를 살짝 내려주어 외형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해 주었다.



<그림62> 왕 앞에 무릎을 꿇은 홍림(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왕후에게 이별을 고한 후, 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홍림을 표현하기 위해 눈가에 다크서클을 만들어주고 혈색을 없애기 위해 밝은 톤으로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입술은 거칠게 튼 느낌을 주었다. 홍림의 헤어스타일은 상투를 배제하고 반 머리 묶음으로 왕의 호위무사가 아닌 왕을 곁을 지키는 사내로 표현하였다.



<그림63> 건륭위 부하들의 효수된 머리를 바라보는 홍림(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건륭위 부하들의 효수된 머리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톤으로 표현하여 충격과 분노에 쌓인 홍림을 보여 주었다. 창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과 다크 써클을 만들어 주고 입술에 거친 느낌을 주어 피곤에 지치고 절망하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림64> 성에 숨어드는 홍림(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과병장병 대열에 위장하여 성으로 숨어오는 장면으로 초췌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어두운 피부 톤으로 표현하고, 입술의 혈색은 없애 주었으며 눈 점막은 아이라인으로 채워주어 독기 어린 강렬한 눈빛은 살려주었다.



<그림65> 건륭위를 제압하고 왕에게 오는 홍림(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건륭위를 제압하고 왕의 침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홍림은 거친 입술에 혈색을 없애주었고, 브라운 톤의 아이 색도우로 눈두덩을 툰다운 시켜 초췌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였다. 또한 눈 밑 점막에 붉은 펜슬을 사용하여 붉게 충혈 된 눈을 연출하였다.



<그림66> 홍림의 최후(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왕과의 처절한 싸움 끝에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억눌렀던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듯 포효하며 싸우는 홍림의 모습을 얼굴 위로 흐르는 땀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촉촉이 젖어 있는 눈매를 표현해주어 처연한 슬픔과 피곤함을 나타내 주었다.

왕과의 칼부림이 길어 갈수록 달아오르는 얼굴과 붉게 충혈 되어 가는 눈은 붉은 색 라이너와 티어 스틱을 사용하였고 핏기 없이 무너져 내린 힘없는 얼굴에 흐르는 땀과 곳곳에 칼에 베인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설정하고, 액션 뒤의 헝클어진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 주어 처절한 상황임을 표현해 주었다.

3. 왕후

1) 인물의 배색 및 디자인 이미지



<그림67> 왕후의 배색 이미지(출처: 연구자)

왕후의 기본 색으로서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브라운 톤과 함께 화사한 아름다움을 주는 핑크(Pink) 색을 메인으로 하고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정열과 사랑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68> 왕후의 참고 이미지

(출처: 左로부터, 드라마 <신돈> 기황후, 드라마 <신돈> 노국공주, 영화 <황후화> 황후, 노국공주 영정)

다른 사극에서 보여진 왕후의 이미지로 각 인물의 성격을 표현한, 모양이 상이한 가채와 눈썹, 눈매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과 왕족의 상징인 봉황이나 꽃의 이미지로 장식한 장신구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왕후의 모델이 되는 노국 공주의 이미지를, 드라마 <신돈>의 노국 공주와 실제 고종의 인물화를 바탕으로, 본 영화에서는 어떻게 차별화하여 연출할 것인지 참고하고자 하였다.



<그림69> 왕후의 기본 이미지(출처: “쌍화점” 미술팀)



<그림70> 왕후 역인 배우 송지효를 모델로 디자인한 인물 컨셉 이미지(출처: 연구자)

왕후의 기본 이미지는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고려시대의 화장이나 머리장식 등에 대한 고증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왕후만의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가체나 머리장식을 디자인했는데 크고 화려하기만한 것이 아니라 질감에 있어서도 디테일을 살리고 자연석들을 이용하여 고급스러움을 살려주는데 포인트를 주었다.

또한 왕후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왕후가 원나라에서 온 공주였다는 사실 등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각 장면에서 보여 지는 왕후의 다양한 감정 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2) 분장 및 헤어 디자인 작업

왕후의 분장과 헤어 디자인 컨셉을 결정하기 위해서 남자배우들과는 달리 많은 횟수의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각 테스트를 통해 캐릭터의 분장과 헤어 컨셉이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71> 다양한 가चे 디자인 테스트(출처: 연구자)

왕후의 헤어는 다양한 가चे를 통해 표현되었는데 이를 위해 <그림71>과 같이 스케치 작업 후 배우에게 시현하기에 앞서 마네킹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시하는 단계를 거쳤으며 이 과정을 통해 가चे의 크기와 모양을 설정하고, 꼬임의 굵기 등 다양한 형태의 조정을 진행하면서 왕후의 가चे 머리 디자인을 결정하였다.



<그림72> 왕후 1차 헤어 테스트(출처: 연구자)

<그림72>는 왕후의 일상생활시 하게 되는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보기위한 테스트로서 배우의 얼굴과 이마 모양에 따라 가리마 등의 형태를 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그림73> 왕후 2차 메이크업 및 헤어테스트(출처: 연구자)

<그림73>은 왕후가 첫 등장하는 장면이나 집무를 볼 때 기본이 되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로써 배우의 피부 톤과 눈썹모양, 눈매, 입술모양 등을 체크하면서 왕후의 메인 컬러와 스타일을 확인하고 볼륨 있는 이마와 턱 선 등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졌다.



<그림74> 극 후반부를 위한 헤어 및 메이크업 테스트(출처: 연구자)

<그림74>는 극의 후반에 이르러 정인인 홍림을 살리기 위해 왕을 죽이라는 명을 내리는 장면의 헤어 및 분장 테스트로 강한 눈매와 야무진 입술 등을 표현하기 위해 메이크업의 컬러와 라인을 정하고 가체의 크기와 모양, 좌우 대칭의 꼬임 형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목적을 가졌다.



<그림75> 왕후 가चे 및 헤어스타일 테스트(출처: 연구자)

<그림75>는 앞선 테스트의 결과를 토대로 배우의 단점을 커버하고 미적 효과를 주기위한 테스트로써 얼굴의 중심이 되는 메인 탑 가चे의 크기를 크게 조정하고, 좌우 대칭의 볼륨과 앞 가리마를 올백으로 하였고 메이크업은 최소한의 색체로 라인만 주어 색을 배제한 메이크업을 점검하는 목적을 가졌다.



<그림76> 왕후 나인복장 테스트(출처: 연구자)

<그림76>은 왕후가 나인으로 변복하고 궁을 나가거나 홍림을 만나러 갈 때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확인하는 테스트이다.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를 토대로 왕후의 기본 분장 컨셉이 결정되었는데 왕후의 캐릭터는 권위적이고 화려한 모습보다 단아하면서 기품 있는 이미지로 보여지며, 극 중반부에는 홍림을 사랑하는 여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원나라 공주 출신이기는 하지만 원나라의 스타일 보다는 고려인에 가까운 메이크업 스타일을 사용했는데, 고려시대의 여성 분장이 이원화되어 양극화의 모습이 뚜렷한 특징이었다면 왕후는 그 중간 지점의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왕후의 평상시 기본 메이크업 톤은 밝고 화사한 피부에 많이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색조에 있어서도 왕후의 기품을 살리도록 고급스러운 색감을 사용했다. 또한 아이 색도우는 브라운 컬러에 은은한 골드 펄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고, 눈매가 깊어 보이도록 아이라인을 그려주었다. 옅은 오렌지 빛 블러셔(Blusher)로 전체적으로 기품 있는 느낌을 주고, 살구 빛의 립 글로스(Lip-gloss)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을 그려 인자하고 후덕한 모습을 표현했다. 이외에 왕후가 나인 변복으로 궁에 나가거나 홍림을 만나러 갈 때의 메이크업은 청순한 느낌과 소녀다움을 표현해주어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보여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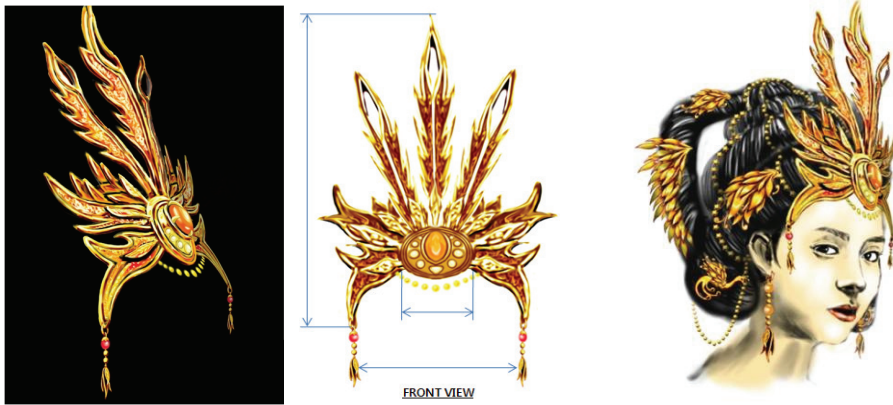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왕후의 메이크업은 짙고 화려한 분장을 배제하고 절제된 색과 톤을 사용하여 인물의 이미지를 특징적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왕후의 헤어스타일 중 가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고려시대의 가체는 간단히 묶어서 꼬는 방식과 면을 이용해 넓게 두르는 듯한 가체였다면 쌍화점에서 왕후의 가체는 조천계와 쌍수계의 변형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우아하고 풍성한 느낌과 꼬임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왕후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체에 볼륨감과 무게감을 주어 민간 여인이나 귀족 여인들과 차이를 주었다. 각 씬 마다 기본 가체로 구성하지만 인물의 심리에 따라 헤어스타일과 함께 가체에 변화를 주어 미묘한

감정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도 가체를 다르게 사용해 스토리의 사실감을 높여주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든 가체는 크기별로 꼬임을 만들어 가체 자체에 무늬를 넣어주어 더 화려하게 보이도록 디테일(Detail)들을 살려 주었다. 또한 왕후를 상징하는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무늬들을 넣은 왕관이나 꽃이들을 각 상황이나 장면, 의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스타일링 하였다. 좀 더 격식을 갖춰야 할 의식이나 행사 때에는 가체의 크기를 더 화려하게 하여 더욱 무게감을 주었으며 커다랗고 화려한 관이나 장식으로 포인트를 줄 때는 가체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도록 장식과 어울릴 수 있는 크기나 모양으로 디자인 하였다. 침소에서나 잠자리에 들기 전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장면에 맞는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설정하되 자칫 밋밋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비너나 비단 끈, 장식 등에 디테일을 살려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3) 장신구 디자인 작업

왕후의 장신구 중 대표적인 것은 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의 영상을 통해서 본 금관은 평면성 때문에 금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인다면 본 영화에서는 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의 형태는 왕권의 상징인 금과 보석을 메인 소재로 하고 관, 꽃이, 귀걸이로 기본 구성으로 하였다. 관의 기본 모티브는 티아라(Tiara)에서 따와 심플함과 화려함을 주었으며 간혹 너무 가벼운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망을 뒤에 덧대는 형식으로 만들어 무게감을 줄이면서 깊이감을 주었다. 또한 테두리는 금으로 하고 디테일을 옥이나 진주와 같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은은하고 고귀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관은 영화의 분위기에 맞게 재창조한 이미지로 부여한 대신 꽃이는 전통의 고증을 철저히 살려 재현하였고, 귀걸이는 관이나 꽃이의 이미지에 균형을 맞춰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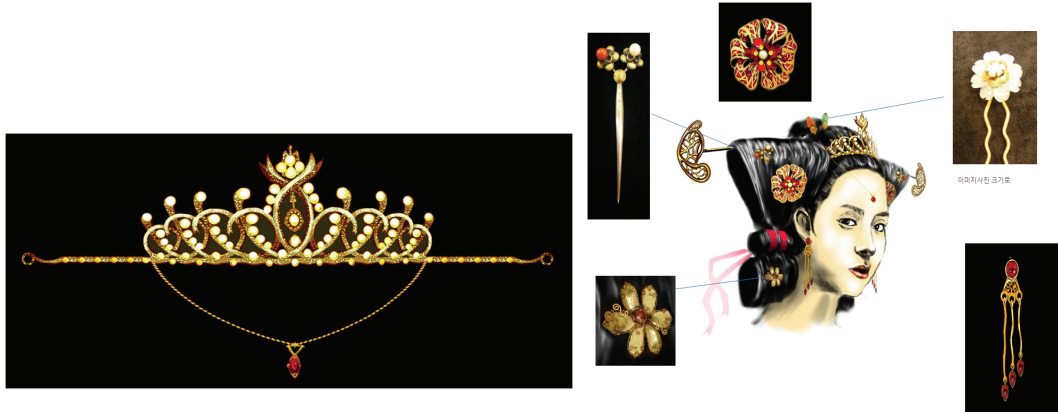


<그림77> 왕후관 디자인(출처: 연구자)



<그림78> 봉황과 갯털 모양 머리장식(출처: 연구자) <그림79> 구슬장식(출처: 연구자)

<그림77>은 극중 연등회 장면에서 쓰인 왕후관으로 불교적 색채가 가장 많이 가미됐다. 디자인의 메인 스타일은 봉황과 탑 모양을 사용했는데 관 가운데 봉황의 얼굴대신 온화한 느낌을 주기 위해 호박으로 장식했으며 꽃이는 봉황의 갯털 모양위주로 꾸며 주었다. 또한 가체는 탑 모양으로 고려의 숭불정책을 표현하였고 원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시대적인 느낌을 주고자 가체 옆면에 쌍환계에 갯털 모양으로 꾸며 디자인 하였으나 실제 영화에서는 다음 장면에서의 연기에 제약이 예상되어 쌍환계 디자인 부분은 삭제하였다. <그림79>의 구슬 장식은 불교의 염주의 느낌을 나타냈고 귀걸이는 등불의 느낌을 주어 전체적으로 불교적 색채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림80> 사신 영접용 관과 머리장식 디자인(출처: 연구자)

<그림80>은 원나라 사신을 영접 할 때 쓰인 왕관과 가체로 이마에 늘어뜨린 붉은 보석은 얼굴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관의 보석은 크기가 다른 여러 진주로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가체는 조천계와 쌍수계의 변형으로 면을 이용해서 지적이며 당당함을 함께 표현해 주었다.



<그림81> 명심정 나들이용 관과 머리장식 디자인(출처: 연구자)

<그림81>은 명심정에 나들이 가는 장면의 머리 장식 디자인으로 왕관은 얇고 가는 철사를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보석은 진주로 장식했다. 나뭇잎을 형상화한 왕관에 작은 진주 장식과 나뭇잎 모양의 비녀를 꽂았으며 뒷 장식은 그물망 형태로 가체를 감싸 얹은 듯 경쾌한 느낌을 나타내 주었다. 이같이 자연을 소재로 해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인자한 왕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82> 일상용 관과 머리장식 디자인(출처: 연구자)

<그림82>는 왕후가 평상시 직무를 볼 때 쓰는 기본 머리 장식 디자인으로써 왕관, 꽃이, 귀걸이로 구성된 장신구와 가체 스타일이다. 이를 여러 개의 관과 가체 디자인으로 변형을 주면서 각 씬의 의상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4) 캐릭터 이미지 결과 분석



<그림83> 왕후의 첫 등장(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통상적으로 사극영화에 등장하는 왕후의 관들은 막혀있는 형태로 무게감과 답답함을 주므로 본 영화의 왕후관은 티아라를 모티브로 하여 열린 방식으로 착용하도록 제작하였다. 왕후의 첫 등장은 한 나라의 왕후로서 위엄과 인자함을 보여주기 위해 격식에 맞춰 붉은색과 푸른색의 옷을 입으며, 좌우 균형 있는 볼륨을 준 가체에 붉은 색의 왕후관과 꽃이들로 장식하였다.

메이크업은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 연출을 위해 밝은 톤의 파운데이션과 수분라인의 프라이머(Primer)를 섞어 사용하였다. 눈썹은 짙은 반달 모양으로 브라운 계통의 펜슬(Pencil)로 그렸고, 새도우는 우아하고 깊이 있는 눈매를 표현하고자 바이올렛(Violet) 색상 계열의 부드러운 크림 타입을 사용하고 브라운 라이너로 점막을 매꾸면서 얇은 라인감을 주었다. 입술은 은은한 핑크 톤으로 내추럴 하고 인자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연출하였다.



<그림84> 명심정에 나들이 중인 왕후(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명심정 나들이에 나선 왕후의 모습은 한 나라의 국모보다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표현하고자 밝고 화사하게 연출하였다. 피부 톤은 두 가지 색의 파운데이션으로 하이라이트와 셰이딩을 주어 얼굴 윤곽을 잡아주었고 새도우는 진주 펄 핑크와 퍼플을 사용하여 큰 눈이 부어 보이지 않게 적당히 명암과 포인트를 주었다. 블러셔는 자연스러운 홍조를 연출하기 위해 부드럽고 은은한 핑크 컬러로 애플존(Apple-zone) 부위에 살짝 발라주어 화사한 스킨 톤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입술은 핑크 톤의 립스틱과 글로스로 입체감을 주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였다.



<그림85> 사신 영접 중인 왕후(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원나라의 공주였지만 현재 고려의 왕후로서 원에 머리를 조아리는 중신들에게 강인한 왕후의 모습을 보이려는 장면으로 격식을 차려서 무게감 있고 디테일이 화려한 가체와 장식으로 고려의 왕후임을 나타내 주었고, 평소의 우아함이나 아름다움을 강조한 메이크업 보다는 강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 아이라인을 더 강하고 길게 빼서 눈매를 강조하고 눈썹을 길게 그려 왕후로써 진중하고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가체는 왕후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평상시와는 다른 디자인으로 조천계와 쌍수계의 변형을 주어 양쪽으로 균형 있는 나비모양으로 제작하여 원나라보다 고려의 느낌을 살렸다. 관은 금을 기본으로 하여 커다란 비녀와 꽃모양에 붉은 톤의 보석을 포인트로 주어 카리스마 있고 독창적인 왕후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분장은 눈매라인을 강조하고자 다크 브라운으로 굵고 길게 해 선명함을 주어 명석함과 지성을 보여주었고 눈썹은 갈매기 눈썹처럼 날렵하게 하여 신하들을 책망할 때 서늘함을 주게끔 하였다. 색도우는 평소에는 파스텔 톤(Pastel tone)의 밝은 색도우를 사용했다면 이 장면에서는 브라운 계열의 스모키(Smoky)로 깊이를 주어 그윽한 눈매와 또렷한 눈빛 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얼굴 각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약간의 직선적이고 인위적인 셰이딩 라인(Line)을 잡아주었다. 입술 또한 글로시한 느낌을 빼고 톤 다운된 갈색 빛의 누디한 립 컬러를 선택하여 지엄한 고려의 왕후로서 최고 권력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86> 홍림과의 합궁(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홍림과 잠자리에 드는 모습으로 여성스러우면서 단아한 느낌을 주고자 꽃이장식은 하지 않았지만 비단 끈으로 살짝 묶어 고급스러운 왕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긴장한 표정에 상기된 볼과 촉촉한 입술을 표현하기 위해 눈 밑에 필감이 있는 베이지(Beige) 톤으로 화사하고 밝은 느낌을 준 다음 아이라인은 그리지 않은 듯 점막에만 연하게 채우며 또렷한 눈매로 보이게 하였고 은은한 핑크빛 블러셔로 애플존 부위에 붉은 느낌을 주었으며 입술은 살구 빛 립 밤으로 볼륨감을 주어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림87> 왕, 홍림과 함께 모인 왕후(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홍림과 합궁 후, 세 사람이 어색한 분위기로 마주 앉아 있는 장면으로 자신의 감정이 왕에게 들킬세라 조심스러운 왕후의 심리를 무채색의 다운된 톤으로 표현하였다. 머리꽃이도 화려하지 않고 단순화하여 애써 치장하지 않은 듯 보이게 했고, 분장 역시 많이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여 단아한 느낌을 주었다.



<그림88> 연등회의 왕후(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왕과 왕비의 후사를 기원하는 자리로써 궁중의 화려한 연회장만큼이나 최대한 화려하게 치장하는 날이다. 권력과 부의 상징이며 왕족의 상징인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새를 연상케 하는 커다란 금관을 포인트로 장식하고 중앙의 금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깃털 모양으로 디자인 한 꽃이 장식들을 더하여 화려한 모습을 강조하였다. 가체의 뒤쪽은 높고 화려하게 볼륨을 살려주면서 장식으로 디테일을 주었고 앞쪽은 가체보다는 왕관을 응용한 커다랗고 화려한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어 왕후의 위엄을 나타냈다.

의상과 관이 모두 골드(Gold) 이고 배경 화면도 골드와 레드(Red)로 구성되어서 메이크업은 과하지 않게 하되 왕후의 자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새도우와 립에 주었고 기본 베이스는 윤기 있는 피부를 기초로 하여 화려한 색감 보다는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색조를 사용

하여 화려한 머리장식과 조화를 이루게 했다. 조명으로 인하여 얼굴 전체적으로 빛이 환하게 감도는 느낌에 따라 라이너로 눈매 교정과 진주 빛 펄 새도우를 이용하여 아이라인 윗부분에 입체감을 주었고, 볼은 은은한 오렌지 빛 블러셔로 기품 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입술은 연한 살구 빛 립 스틱과 금색 펄 글로스로 마무리 하여 볼륨감 있게 표현하여 전체적인 통일감과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그림89> 홍림을 기다리는 왕후(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왕후가 나인인 보덕의 옷으로 갈아입고 홍림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이 순간은 왕후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설레고 애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의 모습을 그렸다. 평소 왕후의 무게감과 다르게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한 단계 밝은 피부 톤과 핑크빛으로 화사한 새도우와 갈색 아이라인으로 부드러운 눈매를 표현하였으며 살구빛으로 달아 오른 뺨과 촉촉한 입술을 연출하였다. 궁녀의 장신구로 기존의 왕후의 느낌이 아니라 청순하고 청초한 이미지에 반머리 묶음과 비단 끈으로 간단히 장식한 머리로 연출하였다.



<그림90> 왕후의 침소(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궁 안에서의 왕후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적당한 크기의 가체에 꼬임으로 문양을 내어 주고 왕후의 상징인 금빛 왕관과 꽃이로 장식했다. 색조는 너무 강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색감을 넣어주고 아이라인을 살려주어 눈매를 강조하였다.



<그림91> 홍림에게 쌍화병을 주는 왕후(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왕후의 사가에서 홍림과 정분을 나눈 뒤 직접 만든 쌍화병을 대접하는 왕후의 모습으로 홍림에 대한 깊어진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한 여인으로서는 지아비에게 품은 연정을 드러내는 사랑스러운 눈빛, 입가에 맴도는 옅은 미소를 짓는 가련한 여인으로 표현하기 위해 펄이 첨가된 파운데이션으로

윤기 있는 피부를 표현했고, 최소한의 색채로 절제된 느낌을 주어 청초하게 표현하였다.



<그림92> 건륭위 부총관에게 왕의 제거를 지시하는 왕후(출처: 오피스픽처스 “쌍화점”)

왕의 집착이 광기에 이르러 불길한 최후를 예감한 왕후가 건륭위의 부총관에게 왕을 제거해 주면 원나라의 세력을 가진 왕후로서 후일을 책임지겠다고 지시하는 장면이다. 한 남자의 정인으로서 그를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최대한 색을 배제하고 유분기 없는 피부 톤과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 톤 다운된 입술로 정리해서 거칠어진 얼굴로 보이도록 하였고 눈만 강조하여 단호한 인상을 주었다. 가체와 머리꽂이 또한 화려하지 않고 단순화하여 애써 치장하지 않은 듯 보이게 하여 왕후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도록 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은 고려 말 공민왕 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쌍화점”의 실제 분장작업 사례를 통해 주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이미지화 과정과 작품 속에 나타난 결과물을 살펴보았다.

우선 사극 영화에서의 분장 작업을 이해하고자 시대적, 사회적, 기술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 사극 영화에서 인물들의 캐릭터 이미지를 창조하는 분장 작업의 과정은 일차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극 영화라는 장르의 기본 조건이 역사적인 사실과 인물을 소재로 한다는 것과 현대가 아닌 지나간 시대를 배경을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시대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및 기술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배우들에게 부여할 시각적 인물 표현의 이미지를 디자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영화 “쌍화점”은 고려 시대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영화 사례 연구에 앞서 고려 시대를 중심으로 사극 분장의 디자인의 영역을 분장, 헤어, 수식 및 장신구로 구분하여 각종 문헌 자료와 그림 자료를 통해 고증 하였다. 주로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조선시대는 많은 사료 및 자료가 남아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선행 작품과 연구가 풍부하여 고증을 하는 과정이 용이하지만 이런 점이 한편으로는 영화적으로 재창조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면 고려시대는 고증의 측면에서는 근거자료가 되는 유물, 문헌, 작품, 그림 등이 풍부하지가 않았으며 그런 점은 오히려 일정부분은 영화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창조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는데 이처럼 고려 시대는 고증에 발이 묶이기 쉬운 조선 시대와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삼국 시대와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사극 영화에서의 분장을 이해하기 위한 고증의 과정을 연구한 후, 영화 “쌍화점”에 대해 영화의 개요와 함께 본 작품의 극을 이끌어가는 주요 등장인물들인 고려왕과 홍림, 왕후를 중심으로 작품이 요구하는 인물의 면모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캐릭터의 내, 외면적인 분석을 토대로 분장을 통해 인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각 인물별로 실제적인 분장 및 스타일 디자인 제작 사례를 연구하였다. 인물들의 분장 및 스타일을 결정하는 과정은 우선 인물의 배색 이미지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과 유사한 기존의 캐릭터를 참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본 디자인 이미지를 하였다. 이후 배우가 결정되면 기본 디자인 이미지에 배우를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인물의 컨셉 이미지가 결정된다. 이때부터 분장 및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실제 작업이 시작되는데 인물의 분장, 헤어, 장신구 등의 컨셉을 결정하기 위한 각종 테스트의 과정이 이루어진 후 인물의 스타일은 최종적으로 분장 작업을 통해 표현된다. 이렇게 영화 “쌍화점” 분장의 세부적인 실제 작업 사례를 통해서 사극영화의 캐릭터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창조되는지 혹은 재해석과 변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작업의 결과물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사극 영화에서의 분장 작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극 영화에서 인물의 창조에 필요한 많은 요소 중 분장, 머리, 장신구와 같은 요소는 시각적으로 인물을 발현시키고 표현해 주는 일차적 목적 외에 특히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상 및 사회·문화상을 극명하게 투영하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렇게 창조된 인물의 이미지가 극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영화의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고 정서를 느끼는데 도움이 됨을 알게 되었다

둘째, 사극 영화에서 분장은 역사의 사실적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

증 작업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지만 극의 재미와 변화 그리고 등장인물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디자인, 소재, 아이템 상의 변형과 영화적인 재창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고증과 영화적인 재창조 사이에서의 균형과 조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쌍화점”의 경우 이러한 고증과 상상력의 조화를 통해 고려시대 특유의 자유분방함을 화려한 세트와 의상, 소품, 독특한 헤어스타일 등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

셋째, 사극 영화에서 고증을 전제로 하여 스타일을 재구성,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영화적 캐릭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분장 디자이너의 상상력과 영감을 통해 창조되는 예술적 작업의 산물로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창조성이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고증과 재창조 사이에서 생기는 부조화를 최대한 줄이면서 영화에 가장 부합하는 표현을 창조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중요한 역할임을 알 수 있었다.

영화는 판타지를 다루는 매체이며 현실의 리얼리티와는 다른 영화적 리얼리티가 존재하는데 이는 사극 영화도 예외가 아니며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내용과 이미지가 실제와는 다를지라도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공감한다면 영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화는 그 배경이 어느 시대임을 막론하고 동시대성을 반영하는 매체로 동시대의 문화와 기술과 정서가 영화 안에 담겨져 있다. 이는 분장의 다양한 요소들과 스타일도 동시대의 관객에게 잘 수용될 수 있는 범주를 기본으로 영화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사극 영화에서 분장의 역할은 영화 속에서 용인되는 리얼리티 안에서 동시대의 문화의 흐름에 맞춰 분장 디자이너가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하여 배우를 영화속의 캐릭터로 적절히 표현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숙영, 퓨전사극과 여성 취향 문화코드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1
- 국립대구박물관, 한국 전통복식 2천년, 통천문화사, 2002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복식 2천년, 신유, 1995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미, 통천문화사, 1988
- 김상기, 고려시대사, 서울대 출판부, 1985
- 김애숙, 고려와 원수식의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4
- 김영숙, 한국복식사, 청주대 출판부, 1998
- 김영인, 한국여성의 색조화장, 도서출판 국제, 2004
- 김영자, 분장의 이해, 열두출판사, 1995
- 김용선, 사극드라마의 수염설정에 따른 분장이미지에 관한 연구, 코리아뷰티 디자인학회지 제4권, 2008
- 김유경 외 사극드라마의 여자캐릭터의 분장특성 연구, 패션 비즈니스 저널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13 No.4, 2009
- 김유영, 전통사극과 퓨전사극의 인물유형에 따른 분장요소,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8
- 김지연, 한국 영상매체에 나타난 의상 고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9
- 김창진, 고려의 여성과 문화, 신서원, 2007
- 김형광, 이야기 고려야사, 시아출판사, 2008
- 류희경 외, 우리 옷 이천년, 미술문화, 1994
- 박대현, 영상 사극에서 나타나는 성격분장에 관한 연구, 한국뷰티아트학회지 제5권, 2007

박선예, 고려와 조선의 분장과 두발장식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5

박소연, TV사극에 나타난 안면분장과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1

박정자 외, 역사로 본 전통머리, 광문각, 2010

봉현숙, TV사극드라마 의상의 고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0

서정남, 영화의 작중 인물·성격에 관한 논고, 한국영화학회 제13호, 1997

손미경, 한국 여인의 발자취, 이환, 2004

신봉승, 역사와 역사극의 인식, 방송연구, 1984

안진정, 디지털 시대의 방송분장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6

원혜은, 사극 드라마 의상제작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03

윤성현, 우리 옛노래 모듬, 도서출판 보고사, 2011

이경자, 영상코드로 작동하는 분장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4

이미애, "성격분장의 유형별 이미지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3

이병훈. "TV사극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7

이선재, 김성진, 우리나라 여성의 머리양식사, 신광출판사, 2003

이종현, 코스프레: 분장 속의 아이들, 지성사, 2007

임린, 한국 여인의 전통머리 모양, 민속원, 2009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1), 경춘사, 1996

장숙환, 전통 남자 장신구, 대원사, 2003

정기운, 성격분장: 분장 캐릭터 메이크업(Character make-up), 광문각, 2009

정매자 외, 우리나라 옛 여인의 머리치장, 청구문화사, 2008

정은이, 텔레비전 사극의 진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6

조성욱 외, 고전으로 본 전통머리, 광문각, 2011

조혜정, 고려시대의 머리모양과 수식 및 화장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8

주은경, 사극의 배우 캐릭터 이미지 분석,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제5권, 2009

주혜정, TV사극 장르를 둘러싼 제작자, 텍스트, 수용자간의 역학,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2

최상식, TV 드라마 작법, 제삼기획, 1997

한명숙, 메이크업 디자이너를 위한 마귀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2011

한정하, 전통적 한국미의 조형성과 메이크업과 코디네이션(Make-up & Coordination)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9

홍수경 외, 분장기술(Special make-up technique), 청구문화사, 2011

www.culturecontent.com

www.naver.com

www.spacec.co.kr

Vogue Korea, 2010~2011

ABSTRACT

A Case Study of Makeup and Hair Style Attendant on the Character of Historical Movie

- Focus on the Movie "*Ssanghwajeom*" -

Kim, Seo Young

Major in Make-up & Special Make-up Effect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Cul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keup in movie is a work to make showing by visualizing the power of expression of actor which is the most basic element to dramatize and express the story of script primarily. It is to make with external expression by making social, cultural, and timely all subjects that characters in movie belong to into image and to make actors reveal properly in drama by making elements that characters have internally and externally into character.

In this thesis, this researcher presented the course that makeup in historical draa movie makes by making character into image through the analysis of real work case of movie "*Ssanghwajeom*" that Joo, Jin Mo, Jo, In Sung, and Song, Ji Hyo starred which was manufactured in 2008 and analyzed and studied the result material.

Movie "*Ssanghwajeom*" to try to handle in this thesis is historical

drama made by making the story of time of king, Kongmin which was laid in the interference period at the end of Koryo period. Thus, in this thesis, first,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feature of work that the feature of work that historical drama makeup has and studied the method to express by visualizing socio-cultural period image, for the understanding of makeup in historical drama movie.

As drama is made on the basis of historical fact event or character in historical drama movie, historical drama makeup should pass by work course to have to verify reality through research inevitably. Relic, literature and historical materials to show the custom, practices and thought of the period should be referred so as not to commit error to distort excessively in expressing the period image to try to handle.

As data for exact real research are insufficient in Korea period in comparison with Chosun period that research data are abundant, recreation to be based on the reinterpretation and imagination of creator could not help being made. So, in the work of this movie also, recreation work that harmony between research and imagination is made was made. Through this presentation of a series of work course, this researcher examined that makeup recreates by designing historical drama character on the basis of research.

This researcher presented the courses to design the style of reappearance elements of historical drama makeup to be able to make character into image, so that each character may be expressed properly in scenes, by analyzing the personality of king, Koryo and queen who are major characters to lead the drama of movie "Ssanghwajeom" and character to be 'Honglim' to make passionate

triangle with them. It could be seen that makeup work establishes character by examining the course to design in detail through setting face makeup and hairstyle to be suitable ofr personality and scene and dress and its ornaments to be suitable for it, so as to express them by each character. In addition, this researcher tried to study by analyzing how the image of characters completed like this appear and play the role in main scenes and express the effect.